시간 밖의 그림자

The Shadow Out of Time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36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6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Shadow Out of Time" (Astounding Stories 1936년 6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hplovecraft.com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2년 동안 이어진 악몽과 공포 속에서, 나는 내가 느낀 어떤 인상들이 신화적 근원을 두고 있다는 필사적인 확신 하나로 겨우 버텨왔다. 하지만 1935년 7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밤, 내가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에서 목격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차마 보증을 서고 싶지 않다. 내 경험이 전부 혹은 일부는 환각이었기를 바랄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각을 일으킬 만한 원인 또한 차고 넘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지닌 실재감은 너무나 끔찍해서 때로는 희망을 품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만약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면, 인간은 우주에 대한 관념과 요동치는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 놓인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 소용돌이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마비될 정도다. 또한 인간은 특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그 위험이 인류 전체를 집어삼키지는 못하더라도, 모험심 강한 일부 인간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괴물 같은 공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우리 탐사대가 조사하려 했던 그 미지의 원시적 석조물 파편들을 발굴하려는 모든 시도를 마침내 포기하라고 간곡히 권고하는 이유도 바로 이 후자의 이유 때문이다.

내가 제정신이었고 깨어 있는 상태였다고 가정한다면, 그날 밤 내가 겪은 일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내가 신화나 꿈이라 치부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소름 끼치도록 명백한 확인이었다. 다행히도 증거는

남아 있지 않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만약 그것이 실재하며 그 유해한 심연으로부터 끌어 올려진 것이라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을 그 경외스러운 대상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 공포와 마주했을 때 홀로 있었으며,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땅을 파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으나, 우연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래 덕분에 그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 나는 확정적인 기록을 남겨야만 한다. 이는 내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진지하게 읽을 다른 이들에게 경고를 전하기 위함이다.

이 기록의 앞부분은 상당 부분, 일반 언론과 과학 잡지를 꼼꼼히 읽는 독자들에게는 꽤 익숙한 내용일 것이다. 나는 지금 나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배의 선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원고를 내 아들인 미스카토닉 대학교의 윙게이트 피슬리 교수에게 남기려 한다. 그는 오래전 내가 겪었던 기이한 기억상실증 사건 이후에도 유일하게 내 곁을 지켜준 가족이자, 내 사건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 중 그 누구보다도, 그는 내가 그 운명적인 밤에 대해 들려줄 이야기들을 비웃지 않을 것이다.

출항하기 전 그에게 입으로 직접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 계시를 글로 된 형태로 전달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유를 가지고 글을 읽고 또 읽는 것이, 내 혼란스러운 말솜씨로 전달하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그림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든 상관없다. 적절한 주석을 덧붙여, 이 글이 도움이 될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보여주어도 좋다.

내 사건의 초기 단계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본격적인 계시를 전하기에 앞서 그 배경을 꽤 상세히 요약하여 서문을 대신하고자 한다.

내 이름은 너새니얼 윙게이트 피슬리다. 한 세대 전의 신문 기사를 기억하는 이들이나, 6~7년 전 심리학 학술지에 실린 편지와 논문들을 접한 이들이라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이다. 1908년부터 1913년 사이 내가 겪은 기이한 기억상실증에 대해 당시 언론은 연일 상세히 보도했다. 또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예전부터 살아온 이 매사추세츠의 고대 마을 뒤편에 공포와 광기, 그리고 마법의 전통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사실이 있다. 나의 가계나 어린 시절에는 광기나 불길한 기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외부의 어떤 근원으로부터 내 삶에 갑작스럽게 드리워진 그 그림자를 생각하면,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수 세기 동안 어둠 속에서 웅크려온, 속삭임이 유령처럼 떠도는 아컴의 쇠락한 풍경이 이러한 그림자에 유독 취약한 환경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나중에 내가 연구하게 된 다른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그조차 확신할 수는 없다.

핵심은 내 혈통과 배경이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이다. 나를 덮친 것은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온 것이었다.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차마 명확한 말로 입 밖에 내기가 망설여진다.

나는 조나단과 한나(윙게이트) 피슬리의 아들이다. 부모님 두 분 모두 헤이버힐의 건실한 가문 출신이었다. 나는 헤이버힐의 골든 힐 인근, 보드먼가에 있는 오래된 본가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러다 열여덟 살이 되어 미스카토닉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아컴에 발을 들였다. 때는 1889년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1895년에 정치경제학 강사로 미스카토닉 대학교에 돌아왔다. 그 후 13년 동안 내 삶은 평탄하고 행복하게 흘러갔다. 1896년에는 헤이버힐 출신의 앨리스 키저와 결혼했다. 세 아이인 로버트 K., 윙게이트, 그리고 한나는 각각 1898년, 1900년, 1903년에 태어났다. 1898년에 부교수가 되었고, 1902년에는 정교수가 되었다. 그 시절의 나는 오컬트나 이상 심리학에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었다.

기이한 기억상실이 찾아온 것은 1908년 5월 14일 목요일이었다. 증상은 아주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불과 몇 시간 전, 전례 없는 혼란스러운 환영들이 번뜩이며 스쳐 지나갔던 것을 말이다. 그 환영들은 나를 몹시 괴롭혔는데, 그것이 분명 불길한 전조였음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감각이 엄습했다. 마치 누군가 내 정신을 강제로 점유하려 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붕괴는 오전 10시 20분경에 일어났다. 나는 3학년 학생들과 몇몇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경제학 VI—경제학의 역사와 현재의 경향— 수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눈앞에 기괴한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강의실이 아닌 기괴한 방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고와 언어는 수업 주제에서 벗어나 방황했고, 학생들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러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 누구도 나를 깨울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온전한 정신은 그로부터 5년 4개월 13일 동안, 우리가 사는 정상적인 세상의 햇빛을 다시는 마주하지 못했다.

물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다. 나는 크레인 가 27번지에 있는 내 집으로 옮겨진 뒤에도, 최선의 의료 조치를 받으며 열여섯 시간 반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5월 15일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눈을 뜨고 말을 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들과 가족들은 나의 표정과 말투가 보여주는 기묘한 양상에 완전히 겁에 질리고 말았다. 나는 나의 정체도, 과거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나는 이러한 무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듯 보였다. 내 눈은 주변 사람들을 기이한 방식으로 응시했고, 얼굴 근육의 움직임 또한 생전 처음 보는 듯 낯설기만 했다.

내 말투조차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마치 처음 써보는 도구를 다루듯 서툴고 더듬거리며 발성했고, 말마디는 기묘할 정도로 딱딱했다. 마치 책을 통해 영어라는 언어를 고통스럽게 독학한 사람처럼 말이다. 발음은 야만적일 만큼 이질적이었으며, 사용하는 관용구에는 기묘한 고어의 파편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의 표현들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후자의 표현 중 하나는 20년이 지난 뒤에도 담당 의사 중 가장 젊었던 이의 기억 속에 아주 강렬하게, 아니 공포스러울 정도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 시절이 되어서야 비로소—처음에는 영국에서, 그다음에

는 미국에서—그러한 문구들이 실제로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문구들이 매우 복잡하고 분명히 새로운 표현들이었을지라도, 1908년 아컴에서 온 그 기이한 환자가 내뱉었던 신비로운 말들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이 재현해내고 있었다.

육체적인 기력은 즉시 회복되었다. 다만 손과 다리, 그리고 신체 기관 전반을 사용하는 법을 다시 익히는 데 묘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기억 상실로 인한 이러한 장애와 여러 부작용 때문에, 나는 한동안 엄격한 의료 관찰을 받아야 했다. 기억이 끊겼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깨닫자, 나는 이를 솔직히 인정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정보에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보기에는, 나의 기억 상실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자마자 내가 본래의 인격 자체에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의사들은 내가 역사, 과학, 예술, 언어, 그리고 민속학의 특정 지점들을 습득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지식들 중 어떤 것은 엄청나게 난해했고, 어떤 것은 유치할 정도로 단순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많은 지식 중 상당수는 여전히 내 의식 너머에 머물러 있었다.

동시에 사람들은 내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지식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나는 그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오히려 숨기려 드는 듯 보였다. 나는 공인된 역사의 범위를 벗어난 아득한 옛 시대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무심하게 언급하곤 했다. 그러다 사람들이 놀라는 기색을 보이면, 나는 그저 농담을 던진 것처럼 넘겨버렸다. 또한 내가 미래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두세 번이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공포를 안겨주기도 했다.

이러한 기이한 통찰은 곧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지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은밀히 주의를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나는 주변 시대의 언어와 관습, 그리고 관점을 흡수하는 데 비정상적일 정도로 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머나먼 이국땅에서 온, 학구적인 여행자처럼 말이다.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대학 도서관을 드나들었다. 그러다 곧 기묘한 여행과 학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수강한 이 특별한 과정들은 이후 몇 년 동안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다. 학문적 교류가 부족했던 적은 없었다. 당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내 사례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차적 인격의 전형적인 사례로 강연 대상이 되기도 했다. 비록 가끔 내가 보이는 기이한 증상이나, 세심하게 숨기려 해도 문득 드러나는 기묘한 조롱의 흔적 때문에 강연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말이다.

둘째 아들인 윙게이트만이 나의 변화가 불러일으킨 공포와 혐오감을 이겨낼 수 있는 듯 보였다. 아이는 내가 낯선 이가 되었다고 느꼈으나, 고작 여덟 살의 나이에도 본래의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 마침내 내가 돌아왔을 때 아이는 나를 찾아왔고, 법원은 나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맡겼다. 그 후로 윙게이트는 내가 몰두해야 했던 연구들을 도왔으며, 서른다섯이 된 오늘날 그는 미스카토닉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가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일으킨 그 공포는 내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08년 5월 15일 깨어난 그 존재의 정신과 목소리,

그리고 얼굴 표정은 결코 너새니얼 윙게이트 피슬리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1908년부터 1913년까지 내 삶에 대해 구태여 길게 늘어놓지는 않으려 한다. 독자들은 오래된 신문 기사나 학술지 기록을 통해, 나 역시 그래야만 했던 것처럼 당시의 핵심적인 사실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내 자금을 직접 관리할 권한을 받았고, 그 돈을 아껴가며 여러 학술 중심지를 여행하고 연구하는 데 현명하게 사용했다. 하지만 나의 여정은 극도로 기이했다. 멀고도 황량한 오지들을 오랫동안 떠돌아야 했기 때문이다. 1909년에는 히말라야에서 한 달을 보냈고, 1911년에는 낙타를 타고 아라비아의 미지의 사막을 횡단하여 세간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 여정들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끝내 알아낼 수 없었다. 1912년 여름에는 배를 한 척 빌려 스피츠베르겐 북쪽의 북극해로 항해했으나, 이후 그 항해는 허망한 결과로 끝났다. 그해 말에는 버지니아 서부의 거대한 석회암 동굴계에서 몇 주간 홀로 머물렀다. 그곳은 이전이나 이후의 탐험가들이 도달했던 한계를 넘어선 곳이었으며, 한 번 발을 들이면 왔던 길을 되짚어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검은 미로였다.

대학에서의 생활은 비정상적일 만큼 빠른 습득력으로 점철되었다. 마치 내 안의 또 다른 인격이 본래의 나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것처럼 말이다. 독서와 독학의 속도 또한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책장을 넘기는 속도에 맞춰 눈을 훑기만 해도 책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었고, 복잡한 도표를 순식간에 해석해 내는 능력은 실로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때로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나의 능력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비록 나는 그런 능력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말이다.

또 다른 추악한 소문들은 내가 오컬트 단체 지도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학자들은 내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혐오스러운 고대 세계의 사제 집단과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당시에는 결코 증명되지 않은 소문들이었으나, 내가 읽던 책들의 성격 때문에 이런 의혹이 더욱 부추겨진 것은 분명했다. 도서관에서 희귀본을 찾아보는 일을 남몰래 처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콩트 데를레트의 『굴의 숭배(Cultes des Goules)』, 루드비히 프린의 『벌레의 신비(De Vermis Mysteriis)』, 폰 융트의 『말할 수 없는 신앙(Unaussprechlichen Kulten)』,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에이본의 서(Book of Eibon)』의 잔해들, 나아가 미친 아랍인 압둘 알하자드의 공포스러운 『네크로노미콘(Necronomicon)』 같은 책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고들었다는 사실은 책 여백에 남겨진 메모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또한, 나의 기이한 변이가 일어났던 무렵을 전후하여 지하에서 벌어지는 사교 활동이 새롭고도 사악한 물결처럼 몰아쳤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1913년 여름, 나는 권태와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조만간 내 삶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흘렸다. 나는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듣던 이들은 대부분 내가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가 늘어

놓는 기억들이 너무나 단편적이었고, 마치 예전에 쓰던 개인적인 기록물에서나 읽었을 법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이다.

8월 중순쯤, 나는 아컴으로 돌아가 크레인 가에 있는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집을 다시 열었다. 그곳에 나는 매우 기이한 형태의 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유럽과 미국의 여러 과학 기구 제작자로부터 부품을 하나씩 모아 조립한 것이었다. 나는 이 장치를 분석할 만큼 영리한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추며 관리했다.

장치를 본 사람들은 일꾼과 하인, 그리고 새로 온 가정부뿐이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장치는 높이 약 2피트, 너비와 두께가 각각 1피트 정도 되는 크기였으며, 막대와 바퀴, 거울이 기묘하게 뒤섞인 형태였다고 한다. 중앙에는 둥글고 볼록한 거울이 하나 있었다. 부품을 제작한 이들을 추적해 확인해 본 결과, 이 모든 사실은 틀림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6일 금요일 저녁, 나는 가정부와 하녀에게 다음 날 정오까지 쉬라고 일렀다. 그날 밤늦게까지 집 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다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마르고 어두운 인상의, 묘하게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가 내렸다. 마지막으로 불빛이 보인 것은 새벽 1시경이었다. 새벽 2시 15분, 한 경찰관이 그곳을 지나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했으나, 낯선 이의 자동차는 여전히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 새벽 4시가 되자 자동차는 분명히 사라진 상태였다.

이후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전화기가 울렸다. 망설임이 느껴지는 이국적인 목소리가 윌슨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 상태가 이상하니 집으

로 와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화는 장거리 전화였으며, 나중에 추적해 보니 보스턴 노스 스테이션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 마른 체구의 외국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의사가 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실 안락의자에 앉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내 앞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다. 매끄럽게 닦인 탁자 위에는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었던 듯한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기괴한 기계는 사라졌고, 그 후로 그 기계에 관한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검고 마른 외국인이 기계를 가지고 떠난 것이리라. 서재 벽난로 안에는 재가 가득 쌓여 있었다. 기억 상실이 시작된 이후 내가 써 내려간 종이 조각들을 남김없이 태워버린 흔적이었다. 윌슨 박사는 내 호흡이 매우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피하 주사를 놓은 뒤에는 호흡이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9월 27일 오전 11시 15분, 나는 격렬하게 몸을 뒤척였다. 지금까지 가면처럼 굳어 있던 내 얼굴에 비로소 표정이 돌기 시작했다. 윌슨 박사는 내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 부차적인 인격의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내 모습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11시 30분경에는 아주 기이한 음절들을 중얼거렸다. 인간의 언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 정오가 조금 지나, 그사이 가정부와 하녀가 돌아왔을 무렵, 나는 영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당시 정통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제번스는 과학적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던 시대적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번영과 불황이라는 상업적 주기를 태양 흑점의 물리적 주기와 연결하려 했던 그의 시도는 아마도 그 정점에 해당할 것이다……"

너새니얼 윙게이트 피슬리는 돌아왔다. 그의 정신이 머무는 시간 속은 여전히 1908년의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으나, 경제학 강의실의 학생들은 강단 위에 놓인 낡은 책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스며드는 과정은 고통스럽고도 험난했다. 5년이 넘는 세월을 통째로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고, 나의 경우 조정해야 할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1908년 이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지 전해 듣는 일은 나를 경악하게 했고 마음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나는 가능한 한 초연한 태도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마침내 둘째 아들 윙게이트의 양육권을 되찾은 뒤, 나는 아이와 함께 크레인 스트리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대학 측에서 호의로 다시 제안해 준 예전 교수직을 맡아, 다시금 강의를 시작하려 노력했다.

나는 1914년 2월 학기부터 일을 시작했고, 딱 1년 동안만 그 일을 계속했다. 그 무렵 나는 내가 겪은 경험이 나를 얼마나 처참하게 뒤흔들어 놓았는지 깨달았다. 스스로 믿기로는 정신은 온전했고 본래의 성격에도 결함은 없었으나, 예전 같은 활기찬 신경 에너지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막연한 꿈과 기괴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세계 대전이 발발하여 내 관심이 역사로 향했을 때, 나는 내가 시대와

사건들을 지극히 기묘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간 개념, 즉 사건의 연속성과 동시성을 구분하는 능력마저 미묘하게 뒤틀려 버린 듯했다. 나는 한 시대에 살면서도 과거와 미래의 지식을 얻기 위해 영겁의 시간 속으로 정신을 흩뿌려 놓는다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히곤 했다.

전쟁은 내게 기묘한 기억의 잔상을 남겼다. 마치 전쟁이 불러올 머나먼 결과들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을지 이미 알고 있으며, 미래의 정보에 비추어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있는 듯한 감각이었다. 이러한 유사 기억들은 모두 극심한 고통을 동반했으며, 마치 인위적인 심리적 장벽이 그 기억들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타인에게 이런 인상을 털어놓았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들은 나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수학과 교수들은 당시에는 학계에서나 논의되던 상대성 이론의 새로운 진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이론들은 훗날 세상을 뒤흔들 만큼 유명해질 이론들이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시간을 단순한 차원의 문제로 격하시키는 연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꿈과 불안한 감정들이 나를 잠식해 들어왔고, 결국 1915년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다. 어떤 인상들은 점차 불쾌한 형상을 띠며 나를 괴롭혔다. 그것은 내 기억상실이 마치 어떤 불경한 교환을 일으킨 것 같다는 집요한 생각을 심어주었다. 내 안의 부차적인 인격은

미지의 영역에서 침입한 외부의 힘이었고, 나의 본래 인격은 그 힘에 밀려나 버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이 내 몸을 차지하고 있던 그 세월 동안, 나의 진정한 자아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이 막연하고도 공포스러운 추측에 사로잡혔다.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 잡지 기사들을 통해 세부적인 사실들을 알아갈수록, 내 몸에 머물렀던 이전 거주자가 보여준 기이한 지식과 기괴한 행동들은 나를 더욱더 괴롭혔다. 타인들을 당혹케 했던 그 기묘한 일들은, 내 무의식의 심연 속에 곪아 터지고 있던 어두운 지식들과 소름 끼치도록 맞물려 돌아갔다. 나는 그 암흑 같던 시절, 그 '다른 존재'가 수행했던 연구와 여정에 관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이 이처럼 반추상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꿈이 문제였다. 꿈은 갈수록 생생해졌고,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어 갔다. 보통 사람들이 꿈을 어떻게 여기는지 잘 알았기에, 나는 아들에게 말하거나 신뢰하는 심리학자 몇 명에게 털어놓는 것 외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기억상실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환영이 얼마나 전형적인 현상인지, 혹은 예외적인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례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심리학자와 역사학자, 인류학자,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정신과 전문의들의 도움을 받으며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악령에 쓰였다는 전설의 시대부터 의학적으로 실재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격 분열에 관한 모든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처음에는 나에게 위안이 되기보다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머지않아 나는 내 꿈들이 일반적인 기억상실증 사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압도적으로 많은 기억상실증 환자들 중 내 경험과 맞닿는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내 경험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여 수년 동안 나를 당혹스럽게 하고 충격에 빠뜨린 기록들이 아주 드물게 남아 있었다. 어떤 기록은 고대의 민담이었고, 어떤 것은 의학사에 기록된 임상 사례였으며, 한두 개는 일반적인 역사서 속에 모호하게 묻혀 있는 일화들이었다. 나의 이 특별한 병증은 지극히 희귀했지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주 긴 간격을 두고 간혹 발생해 온 듯 보였다. 어떤 세기에는 한두 건 혹은 세 건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고, 어떤 세기에는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적어도 기록으로 남은 사례는 없었다.

본질은 언제나 같았다. 명석하고 사색적인 인물이 기묘한 부차적 삶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완전히 이질적인 삶을 영위한다. 처음에는 말과 행동이 어색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과학, 역사, 예술, 인류학에 이르는 방대한 지식을 통째로 흡수하기 시작한다. 그 지식의 습득은 광적인 열정과 비정상적일 만큼 강력한 흡수력을 동반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본래의 의식이 갑작스럽게 돌아오는데, 그 이후로는 간헐적으로 정체 모를 꿈에 시달리게 된다. 그 꿈들은 정교하게 지워져 버린 어떤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을 암시한다.

그 악몽들이 나의 것과, 심지어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사실은, 그 꿈들이 지닌 대단히 전형적인 성격에 대해 내 마음속에 한 치의 의구심도 남기지 않았다. 한두 건의 사례에

서는 희미하고 불경스러운 친숙함마저 느껴졌다. 마치 생각조차 하기엔 너무나 병적이고 공포스러운 우주적 통로를 통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인 것만 같았다. 세 건의 사례에서는 내가 두 번째 변화를 겪기 전 우리 집에 있었던, 정체불명의 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까지 있었다.

조사를 진행하며 안개처럼 내 마음을 어지럽혔던 또 다른 사실은, 명확한 기억 상실을 겪지 않은 이들에게서도 그 전형적인 악몽의 편린이 찰나의 순간, 잡힐 듯 말 듯 나타나는 빈도가 다소 높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지적 능력이 평범하거나 그보다 못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미개해서, 비정상적인 학문이나 초자연적인 정신적 습득을 담아낼 그릇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아주 짧은 순간 이질적인 힘에 휩싸였다가, 이내 정신이 뒤로 밀려나며 인간의 것이 아닌 공포에 대한 희미하고 덧없는 기억만을 남긴 채 깨어나곤 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런 사례는 적어도 세 차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불과 15년 전의 일이었다. 자연의 미지의 심연 속에서 무언가가 시간을 가로질러 눈먼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희미한 사례들이, 이성적인 믿음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기괴하고 불길한 실험의 결과물은 아닐까? 연구를 통해 밝혀낸 신화들이 부추긴 나의 나약한 시절, 형체 없는 추측들은 이처럼 떠돌았다. 최근의 기억 상실 사례들과 관련된 피해자나 의사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듯한,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끈질긴 전설들이 나의 기억 결손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나는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점점 더 격렬해지는 그 꿈과 인상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떼기가 두렵다. 그것들은 마치 광기의 냄새를 풍기는 듯했고, 때때로 나는 내가 정말 미쳐가고 있다고 믿었다. 기억 상실을 겪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정한 유형의 망상이 있는 것일까? 무의식이 당혹스러운 공백을 가짜 기억으로 채우려 애쓰는 과정에서, 기이하고 엉뚱한 상상력이 발현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나를 도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주었던 많은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들 역시 가끔 발견되는 소름 끼칠 정도의 일치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나중에 나는 민속학적인 다른 이론이 더 타당해 보였지만 말이다.) 의사들은 이 상태를 진정한 정신병이라 부르지는 않았으나, 신경증적 장애의 일종으로 분류했다. 나는 이 현상을 헛되이 무시하거나 잊으려 애쓰는 대신, 끝까지 추적하여 분석하려 했다. 의사들은 최신 심리학 원칙에 따라 나의 이러한 방식이 옳다며 진심으로 지지해 주었다. 특히 내가 다른 인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를 관찰했던 의사들의 조언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처음 겪은 이상 증세는 시각적인 것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듯, 훨씬 더 추상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공포가 밀려오기도 했다. 내 모습을 보는 것조차 기묘한 두려움이 생겼다. 마치 내 눈이 내 형체를 완전히 이질적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혐오스러운 무언가로 인식할 것만 같았다. 가끔 아래를 내려다보며 차분한 회색이나 푸른색 옷을 입은 익숙한 인간의 형태를 확인할 때면, 늘 기묘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물론 그 안도감을 느

끼기 위해서는 끝없는 공포를 먼저 이겨내야만 했지만 말이다. 나는 거울을 최대한 피했고, 면도는 항상 이발소에 가서 했다.

파편처럼 흩어진 감각들을 점차 구체화되는 찰나의 시각적 잔상들과 연결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으로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을 깨달은 것은, 내 기억이 외부의 인위적인 힘에 의해 억눌려 있다는 기묘한 감각 때문이었다. 내가 목격한 환영들은 심오하고도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나 자신과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무언가 의도적인 힘이 개입하여, 내가 그 의미와 연결 고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 뒤이어 시간의 흐름마저 뒤틀린 듯한 기묘한 감각이 찾아왔고, 나는 꿈결처럼 스쳐 지나가는 파편들을 시간과 공간의 질서 속에 끼워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려야만 했다.

처음에는 그 환영들이 공포스럽다기보다 그저 기이하게 느껴졌다. 나는 거대한 궁륭형 방 안에 있는 듯했다. 머리 위로는 높게 솟은 석조 아치들이 어둠 속으로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그 장면이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속해 있든, 아치 구조의 원리는 로마인들이 그러했듯 이미 완벽히 이해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거대한 원형 창문과 높은 아치형 문들이 있었고, 받침대나 탁자들은 하나같이 일반적인 방의 높이만큼이나 높았다. 벽면에는 어두운 색 나무로 된 거대한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책등에 기묘한 상형문자가 새겨진 엄청난 크기의 책들이 놓여 있는 듯 보였다. 드러난 석조 벽면에는 곡선 위주의 수학적 문양들이 기이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거대한 책들에 새겨진 것과 같은 문자로 된 비문들도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검은 화강

암 석조물은 거대한 거석 문화의 양식을 띠고 있었는데, 볼록한 윗면을 가진 돌들이 그 아래 놓인 오목한 바닥면의 돌층과 맞물려 쌓여 있었다. 의자는 보이지 않았으나, 거대한 받침대 위에는 책과 종이, 그리고 필기구로 보이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필기구라고는 보라색 금속으로 만든 기묘한 문양의 단지들과 끝부분에 색이 입혀진 막대기들이 전부였다. 받침대들이 워낙 높았음에도, 나는 때때로 그것들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어떤 받침대 위에는 등불 역할을 하는 빛나는 수정 구체들이 놓여 있었고, 유리관과 금속 막대로 이루어진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들도 있었다. 창문에는 유리가 끼워져 있었고 튼튼해 보이는 창살이 격자무늬로 박혀 있었다. 감히 다가가 창밖을 내다볼 엄두는 내지 못했지만,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기묘한 고사리 같은 식물들의 윗부분이 일렁이는 모습은 볼 수 있었다. 바닥은 거대한 팔각형 판석으로 깔려 있었으며, 카펫이나 벽걸이 장식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환영을 보았다.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사이클로피아식 회랑을 휩쓸고 지나가며, 그 괴물 같은 석조물로 만들어진 거대한 경사면을 오르내리는 환영이었다. 어디에도 계단 따위는 없었으며, 통로의 폭은 최소한 30피트는 되어 보였다. 내가 떠다니던 구조물 중 일부는 수천 피트 높이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발밑으로는 검은 아치형 천장이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었고, 금속 띠로 단단히 봉인된 채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함정 문들이 보였다. 그 문들은 무언가 특별한 위험을 품고 있는 듯 희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마치 죄수가 된 기분이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위에는 불길한 공포가 무

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벽면에 새겨진 조롱 섞인 곡선형 상형문자들이 내 영혼을 파멸시킬 것만 같았다. 만약 자비로운 무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문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내 영혼은 산산조각 났으리라.

그 후로도 한동안 꿈속에는 거대한 원형 창문 너머로 펼쳐진 풍경이 나타났다. 또한 기묘한 정원과 드넓고 황량한 광장, 그리고 경사진 평면의 끝이 닿아 있는 높고 물결무늬가 새겨진 석조 난간이 있는 거대한 평지 옥상도 보였다. 그곳에는 각자의 정원을 품은 거대한 건물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건물들은 폭이 200피트에 달하는 포장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건물들은 저마다 생김새가 달랐으나, 가로세로가 500피트 미만이거나 높이가 1,000피트가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어떤 건물은 그 규모가 너무나 막대해서 정면 너비만 수천 피트에 달할 것 같았고, 어떤 건물은 회색빛 증기가 자욱한 하늘을 향해 산맥처럼 높게 솟아 있었다. 건물들은 주로 돌이나 콘크리트로 지어진 듯 보였으며, 대부분은 내가 머물던 건물에서 보았던 기묘한 곡선형 석조 양식을 띠고 있었다. 지붕은 평평한 채 정원으로 덮여 있었고, 물결무늬 난간이 둘러진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정원 사이에 테라스나 더 높은 층이 나타나기도 했고, 넓게 비워진 공간이 보이기도 했다. 거대한 도로 위에는 무언가 움직임이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으나, 꿈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 인상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식별할 수 없었다.

어느 곳에서는 다른 어떤 구조물보다도 훨씬 높이 솟아오른 거대하고 어두운 원통형 탑들을 보았다. 그 탑들은 완전히 이질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세월의 흔적과 황폐함이

역력했다. 탑은 기묘한 방식의 각진 현무암 석조로 쌓아 올려졌고, 둥근 꼭대기로 갈수록 폭이 미세하게 좁아지는 형태였다. 거대한 문을 제외하면, 탑의 어느 곳에서도 창문이나 다른 구멍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나는 주변에서 몇 채의 낮은 건물들도 발견했다. 그 건물들은 영겁의 풍화 작용을 견디지 못해 모두 허물어져 가고 있었지만, 기본적인 건축 양식은 저 어두운 원통형 탑들과 닮아 있었다. 각진 석조로 이루어진 이 기괴한 건축물들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협과 응축된 공포의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굳게 닫힌 함정 문들이 뿜어내는 것과 같은 불길한 기운이었다.

어디에나 펼쳐진 정원은 그 기이함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기묘하고 생소한 형태의 식물들이 고개를 까닥이며 넓은 길 위로 드리워져 있었고, 그 길가에는 기이하게 조각된 단일 석주들이 늘어서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양치식물류가 지배적이었는데, 어떤 것은 초록빛을 띠었으나 어떤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창백한 곰팡이 빛깔이었다. 그 사이로 칼라마이트를 닮은 거대한 유령 같은 형체들이 솟아올라 있었으며, 대나무를 닮은 줄기는 아득할 정도로 높게 뻗어 있었다. 또한 전설 속의 소철처럼 뭉쳐 있는 형태도 있었고, 침엽수를 닮은 기괴하고 짙은 초록빛의 관목과 나무들도 보였다. 꽃들은 작고 색깔도 없었으며 정체를 알 수 없었는데, 기하학적인 화단 안이나 무성한 초록 잎들 사이에서 피어나 있었다. 몇몇 테라스와 옥상 정원에는 더 크고 선명한 꽃들이 피어 있었는데, 그 형태는 불쾌할 정도로 기괴하여 마치 인위적으로 개량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와 윤곽, 색채를 지닌 버섯들이 풍경 곳곳에 점박이처럼 흩어져 있었는

데, 그 모습은 미지의 영역이면서도 분명히 확립된 원예 전통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듯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지상의 넓은 정원에는 자연의 불규칙함을 보존하려는 시도가 엿보였으나, 옥상 정원에는 훨씬 더 선택적인 식재가 이루어졌으며 정교한 토피어리 예술의 흔적이 더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하늘은 거의 언제나 습하고 구름이 가득했으며, 때로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태양의 모습이 언뜻 비치기도 했는데, 그 태양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거대해 보였다. 달 역시 보였으나, 달 표면의 무늬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평소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아주 드물게 밤하늘이 맑게 갠 적도 있었는데, 그때 나는 거의 알아볼 수조차 없는 별자리들을 마주했다. 익숙한 성좌의 윤곽이 간신히 짐작될 때도 있었지만, 원래 모습과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나마 알아볼 수 있는 몇몇 별무리들의 위치를 통해, 나는 내가 지구의 남반구, 남회귀선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먼 지평선은 언제나 증기 때문에 흐릿하고 불분명했다. 하지만 도시 너머로 이름 모를 나무고사리, 칼라미테스, 레피도덴드론, 그리고 시길라리아가 거대한 정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그 기괴한 잎사귀들은 변화무쌍한 안개 속에서 나를 조롱하듯 흔들거렸다. 이따금 하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기척이 느껴지기도 했으나, 초기의 환영 속에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낼 수는 없었다.

III.

피슬리가 미스카토닉 대학교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아컴 근처의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그가 겪은 기묘한 정신적 혼란이 더 이상 학문적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파편화되어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때는 자신이 전혀 가본 적 없는 낯선 장소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해지는 섬뜩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의 정신은 마치 조각난 거울처럼 부서져 있었다. 기억의 빈틈 사이로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건축물과 생경한 풍경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이 현상이 단순한 신경쇠약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거대하고 불가해한 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피슬리는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일들이 단순한 환각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는 일기장에 그 기이한 경험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하지만 그가 기록을 거듭할수록, 그가 마주하는 진실은 더욱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자신이 겪는 이 혼란이 단순히 뇌의 오작동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무너진 틈새로 흘러 들어온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미 말했듯이, 이 기괴한 환영들이 즉각적으로 공포스러운 성질을 띠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보다 더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한다. 일상의 파편과 이미지, 읽었던 내용들이 뒤섞여, 잠결에 일어나는 제멋대로인 변덕에 따라 환상적이고도 새로운 형태

로 재구성된 꿈 말이다. 나는 평소에 공상에 잘 빠지는 편이 아니었음에도, 한동안은 이 환영들을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모호하고 이상한 점들은 대개 추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소한 원인들에서 비롯된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했다. 또한 어떤 것들은 1억 5천만 년 전, 즉 페름기나 트라이아스기 시대의 원시 세계에 대한 식물과 환경 정보를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반영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공포의 기운은 점점 더 강해졌다. 꿈이 마치 실제 기억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또한 내 정신을 괴롭히던 추상적인 이상 증세들과 꿈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기억이 억눌리는 듯한 느낌, 시간에 관한 기묘한 인상, 1908년부터 1913년 사이의 부차적인 인격과 혐오스러운 교환을 나누는 듯한 감각, 그리고 한참 뒤에 찾아온 나 자신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혐오감 같은 것들 말이다.

꿈속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자, 그 공포는 천 배나 더 거세졌다. 1915년 10월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절박함마저 느껴졌다. 나는 기억상실과 환각에 관한 다른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라도 해야 내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를 옥죄는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결과는 처음에는 예상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내 꿈이 다른 사례들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닫자 극심한 혼란이 밀려왔다. 특히 어떤 기록들은 그 작성 시기가 너무 일러서, 당

사자가 지질학적 지식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원시 시대 풍경에 대한 개념조차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때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기록에는 거대한 건축물이나 정글 속의 정원,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한 환각과 더불어 매우 끔찍한 세부 묘사와 설명들이 덧붙여져 있었다.

실제로 목격한 광경과 막연한 인상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웠지만, 다른 꿈을 꾼 이들이 암시하거나 단언한 내용들은 광기와 신성모독의 냄새를 풍겼다. 무엇보다 최악이었던 것은, 나의 가짜 기억이 자극을 받으면서 꿈은 더욱 거칠게 휘몰아쳤고, 앞으로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드러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마저 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는 나의 이러한 대처 방식이 대체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심리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당시의 분위기에 자극을 받은 내 아들 윙게이트 역시 같은 길을 걸었고, 그 학문적 성취는 결국 그를 현재의 교수직에 이르게 했다. 1917년과 1918년 사이, 나는 미스카토닉 대학에서 특별 과정을 이수했다. 그 무렵 나는 의학, 역사, 인류학 기록들을 끈질기게 조사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먼 곳의 도서관들을 찾아다녀야 했고, 결국에는 나의 부차적인 인격이 그토록 불길하게 집착했던 금기된 고대의 지식, 그 끔찍한 서적들까지 읽게 되었다. 그 서적들 중 일부는 내가 의식이 변질된 상태에서 직접 참고했던 판본들이었다. 나는 그 끔찍한 본문들 사이에서 발견된 어떤 여백의 메모와 수정 사항들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것들은 어딘지 모르게 기묘할 정도로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필체와 언어로 적혀 있었다.

이 표식들은 대부분 각 서적의 언어로 적혀 있었다. 필자는 분명 학술적인 수준에서 모든 언어에 능통한 듯 보였다. 하지만 폰 융츠의 『말할 수 없는 의식(Unaussprechlichen Kulten)』에 덧붙여진 주석 하나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달랐다. 그 주석은 독일어 교정문에 쓰인 것과 같은 잉크로 작성된 곡선 형태의 상형문자였는데, 인간이 사용하는 그 어떤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상형문자들은 내 꿈속에서 끊임없이 마주치던 글자들과 아주 밀접하고도 명백하게 닮아 있었다. 때때로 그 의미를 찰나의 순간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떠올리려던 참인 것 같기도 했던 바로 그 글자들이었다.

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서들의 말에 따르면, 해당 서적들의 이전 검토 기록과 열람 기록을 대조해 보았을 때 이 모든 주석은 내가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직접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내가 그 언어들 중 세 가지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이다.

고대의 기록부터 현대의 기록까지, 인류학적 자료와 의학적 기록을 하나하나 짜 맞추어 가며 나는 일관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신화와 환각이 기묘하게 뒤섞인 형태였는데, 그 범위와 광기 어린 양상은 나를 완전히 아득하게 만들었다.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내게 위안을 주었다. 그 신화들이 아주 먼 옛날부터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고생대나 중생대의 풍경을 이토록 원시적인 우화 속에 그려낼 수 있게 한 잃어버린 지식이 무엇인지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풍경들은 분명히 그곳에 존재했다.

그렇기에 고착된 형태의 망상이 만들어질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셈이다. 기억 상실증 사례들이 신화의 전반적인 틀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신화에 덧붙여진 공상적인 요소들이 기억 상실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가짜 기억을 물들였을 것이다. 나 역시 기억을 잃었던 시기에 그 초기 이야기들을 모두 읽고 들었으며, 나의 탐구 과정은 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 주었다. 그렇다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무의식중에 간직하게 된 것들이, 이후에 찾아온 나의 꿈과 감정적 인상들을 물들이고 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몇몇 신화는 인류 이전 세계에 관한 다른 모호한 전설들과도 유의미한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 특히 경악스러울 정도로 거대한 시간의 간극을 다루는 힌두교 설화들이 그러했는데, 이들은 현대 신지학자들의 지식 체계 중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태고의 신화와 현대의 망상은 한 가지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인류는 이 행성이 걸어온 길고도 미지의 역사 속에서, 고도로 진화하여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수많은 종족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하며, 어쩌면 가장 미천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그 신화와 망상은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태를 한 존재들이 이미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3억 년 전, 인류의 최초 양서류 조상이 뜨거운 바다에서 기어 나오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을 세웠고 자연의 모든 비밀을 파헤쳤다. 어떤 존재들은 별들 사이에서 내려왔고, 어떤 이들은 우주만큼이나 오래된 존재였다. 또 어떤 이들

은 지구상의 미생물로부터 급격히 진화해 일어났는데, 그 기원은 우리 생명 주기의 첫 미생물보다도 훨씬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십억 년에 달하는 시간의 간극, 그리고 다른 은하 및 우주와의 연결성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거론되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인간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의 '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이야기와 기록이 가리키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존재했던 한 종족이었다. 그들은 과학이 아는 그 어떤 생명체와도 닮지 않은, 기이하고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이 종족은 인류가 등장하기 불과 오천만 년 전까지 생존해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이야말로 모든 종족 중 가장 위대한 종족이었다. 오직 그들만이 시간의 비밀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신을 과거와 미래로 투사하는 예리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 능력으로 수백만 년의 심연을 가로질러 모든 시대의 지식을 탐구했으며, 지구상에서 과거에 알려졌거나 미래에 알려질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인류의 신화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에 관한 전설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예언자 이야기는 바로 이 종족이 이룩한 업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거대한 도서관에는 지구의 모든 연대기가 담긴 서적과 그림들이 가득했다. 과거에 존재했거나 미래에 존재할 모든 종의 역사와 묘사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예술과 업적, 언어, 그리고 심리 상태까지 상세히 남아 있었다. 이토록 영겁의 시간을 아우르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스의 위대한 종족은 모든 시대와 생명체 중에서 자신들의 본성과 처지에 부합하는 사상과 예술, 그리고 기제들을 골라냈다. 다만 통상

적인 감각을 벗어난 일종의 정신 투사 방식을 통해 얻어야 하는 과거의 지식은, 미래의 지식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수집하기 까다로웠다.

후자의 경우에는 과정이 훨씬 수월하고 실질적이었다. 적절한 기계적 보조 장치만 있다면, 정신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앞을 향해 투사될 수 있었다. 정신은 희미한 초감각적 감각에 의지해 나아가며 목표한 시점에 다다를 때까지 길을 찾는다. 그 후 몇 차례의 예비 시험을 거쳐, 해당 시대의 생명체 중 가장 고등한 존재이자 발견 가능한 최적의 개체를 포착한다. 정신은 그 유기체의 뇌 속으로 침투하여 그곳에 자신의 진동을 심는다. 동시에 원래의 자리를 떠난 정신은 다시 원래의 시대로 되돌아가, 역과정이 시작될 때까지 원래 몸 안에 머물게 된다. 미래의 유기체 몸속으로 투사된 정신은 자신이 입고 있는 외형과 같은 종족의 일원인 척 행동한다. 그러면서 선택한 시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즉 그 시대의 방대한 정보와 기술을 가능한 한 빠르게 습득해 나간다.

한편, 원래의 시대와 육체로 되돌아간 그 전치된 정신은 세심한 보호를 받았다. 이 정신이 점유하고 있는 육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되었으며, 숙련된 질문자들에 의해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이 남김없이 뽑혀 나갔다. 과거에 미래를 탐사하며 가져온 기록 덕분에, 그 정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직접 구사하며 질문을 던지는 일도 흔했다. 만약 그 정신이 위대한 종족이 물리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육체에서 온 것이라면, 영리한 기계들을 만들어 외계의 언어를 마치 악기처럼 연주하며 정보를 캐내기도 했다.

이스의 위대한 종족의 구성원들은 높이가 10피트에 달하는 거대하고 주름진 원뿔 형태였다. 이들의 머리와 다른 기관들은 원뿔의 꼭짓점에서 뻗어 나온, 두께가 1피트나 되는 신축성 있는 팔다리에 붙어 있었다. 네 개의 팔다리 중 두 개 끝에 달린 거대한 발바닥이나 발톱을 딸깍거리거나 긁어서 의사소통을 했으며, 10피트 크기의 거대한 밑동에 붙은 점성 있는 층을 팽창하고 수축시키며 걸어 다녔다.

갇힌 정신이 느꼈던 경악과 분노가 가라앉고, (그 정신이 위대한 종족과는 판이하게 다른 육체로부터 기원했다는 전제하에) 낯선 임시 육체에 대한 공포마저 사라졌을 때, 정신은 비로소 새로운 환경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을 옮겨 놓은 존재에 필적하는 경이와 지혜를 경험할 기회도 얻었다.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걸맞은 봉사를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정신은 거대한 비행선이나 대도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배 모양의 원자력 엔진 탈것을 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온 세상을 누빌 수 있었다. 아울러 행성의 과거와 미래를 기록한 도서관들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깊이 파고들 수도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많은 갇힌 정신이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갇힌 이들은 모두 명석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 과정에서 심연의 공포가 수시로 드러날지라도, 지구의 숨겨진 신비—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거의 닫힌 장들이나, 자신의 수명을 훨씬 넘어선 미래의 시간까지 포함된 어지러운 시간의 소용돌이—를 밝혀내는 일은 그들에게 언제나 삶의 지고한 경험이 되어주었다.

때때로 붙잡힌 이들에게는 미래에서 탈취된 다른 정신들과 만날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보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아니 수백만 년 앞이나 뒤에 살아가는 의식들과 생각을 주고받았다. 또한 모든 이들은 각자의 언어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시대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도록 권고받았다. 그렇게 작성된 기록물들은 거대한 중앙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었다.

여기에 한 가지 슬픈 특수한 부류의 포로가 더 있었음을 덧붙여 둔다. 이들은 대다수의 포로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누렸다. 바로 죽어가는 영구적 망명자들이었다. 이들의 미래 육체는, 죽음에 직면하여 정신적 소멸을 피하고자 했던 위대한 종족의 명석한 일원들에게 빼앗긴 터였다.

이토록 우울한 망명자들은 생각만큼 흔하지는 않았다. 위대한 종족은 수명이 매우 길었기에 삶에 대한 집착이 적었으며, 특히 정신을 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지성체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고대의 지성체들이 영구적으로 정신을 투사한 사례들로부터, 훗날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지속적 인격 변화가 비롯되었다. 인류의 변화 또한 그중 하나였다.

이러한 운명이 그나마 덜 끔찍한 경우는, 사로잡힌 정신의 주인이 이스의 위대한 종족일 때였다. 위대한 종족이 모든 시대에 걸쳐 자신들의 미래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기에, 이런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죽어가는 위대한 종족의 영구적 망명자 수는 매우 적었는데, 이는 주로 죽어가는 존재가 미래의 위대한 종족 정신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

지할 때 따르는 엄청난 형벌 때문이었다. 정신 투사 기술을 통해, 죄를 지은 정신이 미래의 새로운 육체에 안착했을 때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며, 때로는 강제로 정신을 다시 교환하기도 했다. 탐사 중이거나 이미 사로잡힌 정신이 과거의 여러 지역에 머물던 정신들에 의해 밀려나는 복잡한 사례들도 보고된 바 있었으나, 모두 신중하게 바로잡혔다. 정신 투사 기술이 발견된 이래 모든 시대에는, 과거 시대에서 온 위대한 종족의 정신들이 짧거나 길게 머물며 구성하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인구 집단이 있었다.

외계의 존재에게 사로잡혔던 정신이 미래에 본래의 육체로 돌아올 때면, 그동안 위대한 종족의 시대에 배운 모든 지식은 정교한 기계적 최면을 통해 깨끗이 지워졌다. 방대한 지식을 그대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골치 아픈 결과들 때문이었다. 지식이 명확하게 전달된 몇 안 되는 사례들은 과거에 이미 거대한 재앙을 불러왔으며,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도 그러한 재앙을 일으킬 운명이었다. 인류가 위대한 종족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또한, (고대 신화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건이 두 차례 발생한 결과로 얻어낸 것이었다. 그 아득한 시대의 세계로부터 물리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오직 먼 곳의 대지 위나 바다 밑에 남겨진 거대한 석조 유적들, 그리고 공포스러운 프나코틱 사본의 일부 구절뿐이었다.

그리하여 돌아온 정신은 자신이 겪어온 일들을 아주 희미하고 단편적인 환영으로만 간신히 붙들 뿐, 겨우 자신의 시대에 도달했다. 지워질 수 있는 기억은 모두 지워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정신 교체가 일어났던 시점까지는 꿈결 같은 그림자만이 드리워진 공백만

이 이어질 뿐이었다. 어떤 정신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내기도 했고, 드문 확률로 기억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금지된 과거의 단서들이 미래의 세대에 전해지기도 했다. 아마도 집단이나 광신도들이 이러한 단서 중 일부를 비밀리에 소중히 간직하지 않았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네크로노미콘』에는 인류 사이에 그러한 광신도 집단이 존재한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그들은 때때로 위대한 종족의 시대로부터 영겁의 시간을 거슬러 항해해 내려오는 정신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집단이었다.

그사이 위대한 종족은 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전지함에 가까워졌다. 그들은 다른 행성의 정신들과 교류를 시도하며, 그 행성들의 과거와 미래를 탐색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또한 위대한 종족은 자신들의 정신적 유산이 흘러나온 저 먼 우주의 검고 죽어버린 행성, 그 영겁의 세월을 간직한 구체의 과거와 기원을 파헤치려 애썼다. 위대한 종족의 정신은 육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궁극의 비밀을 통달한 채 죽어가는 고대 세계의 존재들은, 자신들이 장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와 종족을 찾아 앞날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신을 수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미래의 종족에게 대거 전송했다. 그 종족은 바로 10억 년 전 지구에 살았던 원뿔 모양의 생명체들이었다. 이처럼 위대한 종족이 탄생하게 되었으나, 과거로 보내진 수많은 정신은 기괴한 형체들이 주는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훗날 이 종족은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겠지만, 가장 뛰어난 정신들을 육체적 수명이 더 긴 다른 존재들의 몸으로 다시 한번 전송함으로써 생존을 이어갈 것이다.

전설과 환각이 뒤섞인 배경은 이러했다. 1920년경, 나의 연구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자 초기에 느꼈던 긴장감도 조금은 누그러졌다. 결국 맹목적인 감정이 불러일으킨 망상들을 제외하면, 내가 겪은 현상 대부분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기억을 잃었던 시절, 어떤 계기로 인해 내 정신이 어두운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금기된 전설들을 읽게 되었고, 오래되었으나 불길한 평판을 가진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을 만난 것이다. 기억이 돌아온 뒤 찾아온 기괴한 꿈과 불안한 감정들은, 분명 그때 접한 내용들이 재료가 되어 나타난 것이리라.

꿈속의 상형문자와 내게 생소한 언어로 쓰여 있으나 사서들이 내 소행이라고 주장한 그 여백의 메모들에 대해서라면, 나는 그저 의식이 흐릿하던 상태에서 그 언어들을 어렴풋이 익혔을 뿐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다. 상형문자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옛 전설의 묘사들을 토대로 내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며, 그 후 꿈속에서 엮어낸 결과물일 것이다. 나는 실존하는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며 몇몇 사실을 확인하려 시도했으나, 끝내 그들 사이의 정확한 연관성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서로 다른 먼 시대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례가 이토록 유사하다는 사실은 처음 그랬던 것처럼 때때로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민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희생자들은 아마도 내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야 겨우 알게 된 그 이야기들을, 평소에 아주 익숙하고 오랫동안 접해왔을 것이다.

기억을 잃었을 때, 이 희생자들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화 속 존재들, 즉 인간의 정신을 찬탈한다고 전해지는 그 환상적인 침입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상상 속의 비인간적인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믿으며 지식을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했을 테다. 그러다 기억이 돌아오면, 그들은 연상 작용을 뒤집어 자신을 침입자가 아닌, 과거에 사로잡혔던 정신으로 인식하게 된다. 전형적인 신화의 양상을 띠는 꿈과 가짜 기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설명들이 겉보기에는 다소 번거롭고 복잡해 보일지라도, 결국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모든 가설을 대신하여 자리 잡았다. 다른 이론들이 가진 허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기도 했다. 게다가 저명한 심리학자와 인류학자 중 상당수도 점차 내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논리는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결국 나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환영과 인상들에 맞서, 그것들을 막아낼 확실한 방벽을 세울 수 있었다. 설령 밤마다 기이한 것들을 본다 한들 어떠랴? 그것들은 그저 내가 듣거나 읽었던 것들의 잔상일 뿐이다. 설령 기묘한 혐오감이나 관점, 혹은 가짜 기억을 품게 된다 한들 어떠랴? 이 또한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흡수해 버린 신화들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내가 꿈꾸는 것이나 느끼는 것 중 그 무엇도,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 믿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마음을 다잡자 신경의 안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비록 (추상적인 인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환영에 가까

운) 그 형상들이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말이다. 1922년쯤 되자 다시 규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고 느꼈고, 대학에서 심리학 강사직을 맡으며 새로 얻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내가 몸담았던 정치경제학 석좌교수직은 이미 다른 이가 맡은 지 오래였다. 게다가 경제학 교수법 또한 내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당시 내 아들은 지금의 교수직에 오르기 위한 대학원 과정을 막 시작하던 때였기에,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빽빽하고도 생생하게 짓누르는 그 기이한 꿈들을 계속해서 꼼꼼히 기록해 나갔다. 나는 이 기록이 심리학적 자료로서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꿈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은 여전히 지독할 정도로 기억과 닮아 있었다. 비록 나는 그 인상을 떨쳐내기 위해 꽤나 애를 썼지만 말이다. 기록할 때만큼은 그 환영들을 실제로 목격한 사실처럼 다루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에는 밤새 피어오르는 거미줄 같은 환상처럼 가볍게 무시해 버렸다. 평소 대화 중에 이런 일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원래 그런 일들이란 은연중에 새어 나가기 마련이라, 내 정신 건강에 관한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그 소문들은 온전히 일반인들 사이에서만 돌았을 뿐, 의사나 심리학자 중에는 그 소문을 옹호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말이다.

1914년 이후에 겪은 환상들에 대해 여기서는 몇 가지만 언급하려 한다. 더 자세한 내용과 기록은 진지하게 탐구하는 학자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묘한 억제력은 다소

약해진 듯했다. 환상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상들은 여전히 명확한 동기 없이 흩어진 파편들에 불과했다.

꿈속에서 나는 점차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석조로 된 수많은 기묘한 건물 사이를 떠다녔다. 거대한 지하 통로들은 마치 도시의 공용 도로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나는 그 통로를 따라 건물에서 건물로 이동했다. 때로는 가장 낮은 층에서 거대하고 봉인된 함정 문들을 마주하기도 했다. 그 문들 주변에는 공포와 금기라는 기운이 짙게 감돌고 있었다.

거대한 모자이크 연못을 보기도 했고, 온갖 종류의 기묘하고 설명할 수 없는 도구들이 놓인 방들을 보기도 했다. 또한 복잡한 기계 장치들로 가득 찬 거대한 동굴들도 있었다. 그 기계들의 윤곽이나 용도는 내게 완전히 생소한 것이었으며, 그 기계들이 내는 소리는 꿈을 꾼 지 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했다. 덧붙이자면, 환상의 세계에서 내가 사용한 감각은 시각과 청각뿐이었다.

진정한 공포는 1915년 5월, 내가 그 생명체들을 처음 목격했을 때 시작되었다. 당시의 나는 아직 학문적 연구를 통해 신화나 사건 기록들이 암시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정신적 방어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건물 곳곳과 아래쪽 거리에서 얇은 증기 덩어리 같은 거대한 형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형체들은 점차 점점 더 단단하고 뚜렷해졌으며, 마침내 나는 그것들의 기괴한 윤곽을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불쾌할 정도로 쉽게 그려낼 수 있었다.

그것들은 높이와 밑면의 너비가 각각 10피트 정도 되는, 거대하고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원뿔 모양처럼 보였다. 그 몸체는 울퉁불퉁한 비늘이 돋아 있고 반쯤 탄성이 있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다. 원뿔의 꼭대기에는 유연한 원통형 팔이 네 개 뻗어 나와 있었는데, 각 팔의 두께는 1피트 정도였고 원뿔과 마찬가지로 울퉁불퉁한 질감을 띠고 있었다. 이 팔들은 때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축했다가, 때로는 10피트 거리까지 길게 늘어나기도 했다.

네 개의 팔 중 두 개의 끝에는 거대한 발톱이나 집게가 달려 있었다. 세 번째 팔의 끝에는 붉은 나팔 모양의 부속 기관 네 개가 달려 있었다. 마지막 네 번째 팔의 끝에는 지름이 2피트 정도 되는 불규칙한 모양의 황색 구체가 달려 있었는데, 그 구체의 중앙 둘레를 따라 커다란 검은 눈 세 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다. 이 머리 위로는 꽃 같은 부속 기관을 매단 가느다란 회색 줄기 네 개가 솟아 있었고, 머리 아래쪽에는 여덟 개의 녹색 더듬이 혹은 촉수가 매달려 있었다. 중앙 원뿔의 거대한 밑면은 고무 같은 회색 물질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것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생명체 전체를 움직이게 했다.

그들의 행동은 해롭지 않았으나, 외형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괴물 같은 형체들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어온 행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형체들은 거대한 방 안을 지성적으로 움직였다. 선반에서 책을 꺼내 커다란 탁자로 옮기거나, 반대로 탁자 위의 책을 선반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때로는 녹색 머리 촉수에 펜처럼 생긴 막대를 쥐고 부지런히 글을 쓰기도 했다. 거대한 집게는 책을 운반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데 사

용되었는데, 그들의 대화는 일종의 딸깍거리는 소리와 긁는 소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에게 의복은 없었으나, 원뿔형 몸통 윗부분에는 가방이나 배낭을 매달고 있었다. 그들은 보통 머리와 머리를 지탱하는 부위를 원뿔 꼭대기 높이로 유지하며 움직였지만, 수시로 높이를 올리거나 낮추기도 했다. 사용하지 않을 때 나머지 세 개의 거대한 팔은 원뿔 옆면에 붙어 아래로 늘어져 있었으며, 길이는 각각 약 5피트 정도였다. 책을 읽고 쓰는 속도, 그리고 기계를 다루는 솜씨를 보건대(탁자 위의 기계들은 왠지 사고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의 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더 거대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후로 나는 어디에서나 그들을 보았다. 거대한 방과 복도마다 그들이 떼 지어 몰려다녔고, 아치형 천장이 있는 지하 묘지에서는 기괴한 기계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광활한 도로 위에서는 거대한 배 모양의 탈것을 타고 질주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마치 그 환경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부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에서도 개별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몇몇은 어떤 종류의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제약을 받는 이들은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몸짓이나 습관이 제각각이라 대다수의 개체는 물론이고 서로조차 확연히 구분될 정도였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글을 써 내려갔는데, 흐릿한 내 시야에 비친 그 글자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대다수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곡선형 상형문자와는 전혀 달랐다. 내 착각일지도 모르나, 그중 몇몇은 우리가 사용하는

익숙한 알파벳을 쓰는 것 같기도 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일반적인 존재들보다 훨씬 느릿하게 움직이며 일했다.

그동안 꿈속에서 나의 역할은 육신이 없는 의식에 불과했다. 시야는 평범한 인간보다 훨씬 넓었으나, 이동할 때는 늘 일상적인 경로와 속도에 갇혀 자유롭게 떠돌 뿐이었다. 육신이 존재한다는 암시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1915년 8월에 이르러서였다. 내가 '괴롭히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 초기 단계가 앞서 언급한 나의 신체 혐오감과 꿈속의 장면들이 결합하며 나타난, 순수하게 추상적이면서도 무한히 끔찍한 연상 작용이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꿈을 꾸는 동안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 몸을 내려다보지 않는 것이었다. 그 기묘한 방들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른다. 나는 늘 커다란 탁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그 탁자들의 높이는 아무리 낮아도 10피트는 되어 보였는데, 나의 시선은 언제나 그 탁자 상판보다 낮지 않은 높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내려다보고 싶다는 병적인 유혹은 갈수록 강렬해졌고, 마침내 어느 날 밤 나는 그 충동을 이겨내지 못했다. 처음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나는 내 머리가 엄청나게 긴, 유연한 목 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목을 움츠리고 아래를 아주 날카롭게 훑어 내려가자, 높이 10피트, 밑면 너비 1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원뿔 모양의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비늘로 뒤덮여 주름지고 무지갯빛으로 번뜩이는 거대한 덩어리였다. 그 순간, 나는 깊은 잠의 심연에서 미친 듯이 솟구쳐 오르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아컴의 절반이 잠에서 깨어났다.

끔찍한 환영이 몇 주 동안이나 반복되고 나서야, 나는 괴물 같은 형상을 한 나의 모습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이제 다른 미지의 존재들 사이를 육신을 가진 채 거닐었다. 끝없이 늘어선 선반에서 무시무시한 책들을 읽고, 머리 위로 늘어진 초록색 촉수들이 쥔 스타일러스로 커다란 탁자에 앉아 몇 시간씩 글을 썼다. 내가 읽고 쓴 내용 중 일부는 기억 속에 잔상처럼 남았다. 그곳에는 다른 세계와 다른 우주에 관한 끔찍한 연대기가 있었고, 모든 우주의 바깥에서 꿈틀거리는 형체 없는 생명체들에 관한 기록도 있었다. 잊힌 과거에 세상을 가득 채웠던 기이한 존재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인류가 죽고 난 뒤 수백만 년 후에 세상을 채우게 될 기괴한 형상의 지성체들에 관한 공포스러운 연대기도 있었다. 또한 나는 오늘날의 학자라면 누구도 짐작조차 못 했을 인류사의 장(章)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 기록들의 대부분은 상형문자로 쓰여 있었다. 나는 웅웅거리는 기계들의 도움을 받아 기묘한 방식으로 그 문자를 공부했는데, 그것은 분명 교착어였으며 그 어근 체계는 인류의 언어와는 완전히 달랐다. 다른 책들은 같은 기묘한 방식으로 익힌 또 다른 미지의 언어들로 쓰여 있었다. 아주 드물게 내가 아는 언어로 된 책들도 있었다. 기록 사이에 끼워져 있거나 별도로 수집된 매우 정교한 그림들은 내 이해를 크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내 시대의 역사를 영어로 기록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내가 터득했던 미지의 언어들은 아주 미세하고 의미 없는 파편으로만 떠올랐지만, 그 역사 속의 문장들은 통째로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깨어 있는 상태의 내가 유사한 사례들이나 꿈의 근원이 되었을 오래된 신화들을 연구하기도 전부터, 나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내 주변을 에워싼 존재들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종족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은 시간을 정복했으며, 모든 시대로 탐사하는 정신들을 보내왔다. 또한 나는 나의 시대에서 강탈당한 사이, 다른 존재가 그 시대에서 나의 육체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기이한 형체들 중 일부 역시 이와 유사하게 붙잡힌 정신들을 품고 있었다. 나는 마치 발톱이 부딪히는 기묘한 언어로, 태양계 구석구석에서 추방된 지성체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우리가 금성이라 부르는 행성에서 온 정신이 하나 있었다. 그 정신은 헤아릴 수 없는 먼 미래의 세월을 살아갈 존재였다. 또한 600만 년 전, 목성의 외곽 위성에서 온 정신도 있었다. 지구의 정신 중에서는 고대 남극에 살았던, 날개가 달리고 별 모양의 머리를 한 반식물 종족의 정신이 있었다. 전설 속 발루시아의 파충류 종족에서 온 정신이 하나 있었고, 털이 숭숭 난 인류 이전의 하이퍼보리아인 중 차토구아를 숭배하던 이들의 정신이 세 개 있었다. 완전히 혐오스러운 초초 종족의 정신이 하나 있었으며, 지구의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거미형 생물들의 정신이 두 개 있었다. 인류 바로 다음에 등장한 강인한 딱정벌레류 종족의 정신이 다섯 개 있었는데, 이들은 훗날 닥쳐올 끔찍한 위협에 맞서 위대한 종족이 자신들의 가장 명석한 정신들을 통째로 옮겨가게 될 대상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여러 갈래에서 온 정신들도 여럿 있었다.

나는 수많은 이들과 정신을 나누었다. 서기 5000년에 나타날 잔-찬이라는 잔혹한 제국의 철학자, 이앙리의 정신과 나누었다. 기원전 50,000년에 남아프리카를 지배했던 머리 큰 갈색 인종의 장군과도 나누었다. 12세기 피렌체의 수도사 바르톨로메오 코르시와도 나누었다. 납작하고 노란 이누트족이 서쪽에서 몰려와 그 땅을 집어삼키기 10만 년 전, 저 끔찍한 극지방을 다스렸던 로마르의 왕과도 나누었다. 서기 16,000년의 어두운 정복자들 중 마법사였던 너그-소스, 그리고 술라 시대의 재무관이었던 티투스 셈프로니우스 블라에수스라는 로마인과도 나누었다. 니알라토텝의 흉측한 비밀을 내게 들려준 제14왕조의 이집트인 케프네스와도 나누었다. 아틀란티스 중왕국에서 온 사제와도 나누었다. 크롬웰 시대 서퍽의 신사 제임스 우드빌과도 나누었다. 잉카 이전 페루의 궁정 천문학자와도 나누었다. 서기 2518년에 죽을 오스트레일리아의 물리학자 네빌 킹스턴-브라운과도 나누었다. 태평양 너머 사라진 예(Yhe)의 대마법사와도 나누었다. 기원전 200년의 그리스-박트리아 관리 테오도티데스와도 나누었다. 루이 13세 시대의 노년 프랑스인 피에르 루이 몽마니와도 나누었다. 기원전 15,000년의 키메리아 족장 크롬-야와도 나누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들과 정신을 나누었기에, 그들에게서 배운 충격적인 비밀과 어지러운 경이로움을 내 뇌가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다.

매일 아침 나는 열병에 시달리며 깨어났다. 때로는 현대 인류의 지식 범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붙들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확인하려 미친 듯이 매달리기도 했다. 기존의 사실들은 새롭고도 의심스러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고, 나는 꿈속의 상상력이 어떻

게 역사와 과학에 이토록 놀라운 부연 설명을 덧붙일 수 있는지 경이로움마저 느꼈다. 과거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를 신비에 전율했고, 미래가 몰고 올 위협에 몸을 떨었다. 인간 이후의 존재들이 남긴 말속에 암시된 인류의 운명은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기에, 차마 이곳에 다 적지는 못하겠다.

인류가 사라진 뒤에는 거대한 갑충 문명이 등장할 것이며, 괴물 같은 파멸이 구세계를 덮칠 때 이스 위대한 종족의 정예들이 그 갑충들의 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후 지구의 수명이 다해갈 무렵, 전이된 정신들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다시 이동할 것이다. 그들은 수성의 울퉁불퉁한 식물형 존재들의 몸을 새로운 거처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종말이 오기 전, 그 뒤를 이어 차가운 행성에 처량하게 매달려 공포로 가득 찬 행성의 핵까지 파고드는 종족들이 또 나타날 것이다.

그사이 꿈속에서 나는 내가 준비하던 내 시대의 역사를 끝없이 써내려갔다. 그것은 반은 자발적이었고, 반은 도서관 이용과 여행 기회를 더 늘려주겠다는 약속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이 기록을 이스의 위대한 종족의 중앙 기록 보관소에 바치기 위해 작성하고 있었다. 기록 보관소는 도시 중심부 근처의 거대한 지하 구조물 안에 있었는데, 잦은 작업과 자문을 거듭하며 나는 그곳을 아주 잘 알게 되었다. 위대한 종족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유지되도록, 그리고 지구의 그 어떤 격렬한 진동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된 이 거대한 저장소는 산처럼 육중하고 견고한 구조를 자랑하며 다른 어떤 건물보다도 압도적인 위용을 뽐냈다.

기록물은 기묘할 정도로 질긴 셀룰로오스 직물로 된 커다란 시트 위에 쓰이거나 인쇄되어 있었다. 이 기록들은 위쪽으로 펼쳐지는 책 형태로 제본되어 있었으며, 회색빛을 띠는 기묘하고도 매우 가벼운 무부식 금속으로 만든 개별 보관함에 담겨 있었다. 보관함 표면에는 수학적 문양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이스 위대한 종족의 곡선형 상형문자로 된 제목이 새겨져 있었다. 이 보관함들은 똑같은 무부식 금속으로 제작된 직사각형 형태의 금고들에 층층이 쌓여 보관되었는데, 마치 자물쇠로 잠긴 선반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금고는 복잡한 나사 모양의 손잡이로 고정되어 있었다. 나의 기록은 가장 낮은 층, 즉 척추동물 단계의 금고 중 특정 구역에 배정되어 있었다. 그곳은 인류의 문화와, 인류가 지구의 지배권을 잡기 직전에 번성했던 털이 많거나 파충류 형태를 띤 종족들의 문화를 다루는 구역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꿈도 일상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지는 않았다. 꿈은 그저 안개처럼 뿌옇고 파편화된 조각들에 불과했으며, 그 조각들조차 원래의 순서대로 펼쳐지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예컨대 꿈속에서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불완전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나만의 거대한 석조 방을 소유했던 것 같기는 하다. 죄수로서 겪어야 했던 제약은 점차 사라졌고, 덕분에 꿈속의 환영에는 거대한 정글 길을 따라 생생하게 여행하거나, 낯선 도시들에 머물고, 위대한 종족이 기묘한 공포를 느끼며 피하던 창문 없는 거대한 어둠의 유적들을 탐험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대한 다층선들을 타고 긴 항해를 하기도 했으며, 전기적 반발력으로 떠올라 움직이는, 탄환처럼

생긴 폐쇄형 비행선을 타고 거친 지역들을 가로지르기도 했다. 넓고 따뜻한 바다 너머에는 위대한 종족의 또 다른 도시들이 있었고, 어느 먼 대륙에서는 검은 코를 가진 날개 달린 생명체들의 투박한 마을을 보기도 했다. 위대한 종족이 서서히 다가오는 공포를 피해 그들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을 미래로 보낸 뒤, 그 자리를 차지하며 지배종으로 진화하게 될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풍경의 주된 특징은 언제나 평탄한 지형과 넘쳐흐르는 초록빛 생명력이었다. 언덕은 낮고 드문드문했으며, 대개 화산 활동의 흔적을 띠고 있었다.

내가 목격한 생물들에 대해서라면 책을 몇 권이라도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곳의 생물들은 모두 야생의 상태였다. 이스의 위대한 종족이 이룩한 기계 문명은 오래전에 가축을 몰아냈고, 식량 또한 전적으로 채소나 합성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투박한 파충류들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늪지에서 허우적거렸고, 무거운 공기 속을 파닥거리며 날아다녔으며, 바다와 호수에서는 물줄기를 뿜어내기도 했다. 나는 그 모습들 사이에서 고생물학을 통해 익히 보았던 수많은 형태의 원시적 원형들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다. 공룡이나 익룡, 어룡, 미궁양서류, 람포린쿠스, 수장룡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했다. 하지만 새나 포유류 중에는 눈에 띄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땅과 늪지에는 뱀과 도마뱀, 악어들이 끊임없이 꿈틀거렸고, 무성한 식물 사이로는 벌레들이 쉴 새 없이 윙윙거렸다. 저 멀리 바다 너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미지의 괴물들은 안개 자욱한 하늘을 향해 산더

미 같은 거품 기둥을 뿜어 올렸다. 언젠가 나는 탐조등을 밝힌 거대한 잠수함에 올라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생명체들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언뜻 목격했다. 또한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한 가라앉은 도시의 유적들을 보았으며, 그곳 어디에나 넘쳐나던 바다나리, 완족류, 산호, 그리고 물고기 생명체들이 이루는 풍요로운 생태계를 보았다.

이스의 위대한 종족이 지닌 생리적 구조나 심리, 풍습, 그리고 상세한 역사에 관해서라면, 나의 환상 속에서 얻은 정보는 그리 많지 않았다. 여기 흩어져 있는 여러 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직접 꿈을 꾸며 얻은 것이라기보다, 오래된 전설과 다른 사례들을 연구하며 수집한 것들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독서와 연구가 꿈의 여러 단계에 도달했고, 나중에는 꿈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이다. 덕분에 어떤 꿈의 파편들은 미리 설명된 듯한 느낌을 주었고, 내가 학습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증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의 또 다른 자아가 수행한 독서와 연구가, 이 끔찍하고도 가짜 같은 기억들의 전체 구조를 만들어낸 근원이라는 내 믿음을 확고히 해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꿈을 꾸었던 시기는 대략 1억 5천만 년 전, 고생대가 중생대로 넘어가던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스 위대한 종족이 차지하고 있던 신체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생물학적 계통이나, 혹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그 어떤 진화의 흔적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들의 몸은 동물과 식물의 경계에 걸쳐 있는, 매우 특이하고 균질하며 고도로 전문화된 유기적 형태를 띠고 있었다. 세포의 작용 방식 또한 매우 독특하여 피로

를 거의 느끼지 않았고, 수면의 필요성조차 완전히 없애버렸다. 영양분은 커다란 유연한 다리 중 하나에 달린 붉은 나팔 모양의 부속기관을 통해 흡수되었는데, 이는 항상 반액체 상태였으며 여러 면에서 현존하는 동물의 먹이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감각 중에서는 시각과 청각만을 가졌을 뿐이었다. 청각은 머리 위 회색 줄기에 달린 꽃 모양의 부속기관을 통해 작동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감각들을 여럿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의 몸을 빌려 쓰는 이질적인 포로의 정신으로는 그 감각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을 뿐이다. 세 개의 눈은 일반적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혈액은 아주 걸쭉하고 짙은 녹색을 띠는 액체였다. 그들에게는 성별이 없었으나, 몸 밑부분에 뭉쳐 있는 씨앗이나 포자를 통해 번식했다. 이 포자들은 오직 물속에서만 발아할 수 있었다.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는 거대하고 얕은 수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개체들의 수명이 워낙 길었기에, 수조에서 길러지는 새끼의 수는 늘 적은 편이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은 4,000년에서 5,000년에 달했다.

결함이 있는 개체들은 결함이 발견되는 즉시 조용히 처분되었다. 촉각이나 신체적 통증을 느낄 수 없었기에, 질병의 징후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오로지 시각적인 증상만으로 식별되었다. 죽은 자들은 엄숙한 의식과 함께 화장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주 가끔은 명석한 정신이 시간을 앞질러 투사됨으로써 죽음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런 사례가 흔하지는 않았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래

에서 유배된 그 정신은 낯선 육신이 소멸할 때까지 지극한 친절로 대접받았다.

위대한 종족은 네 개의 명확한 분파로 나뉘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주요 기관들을 공유하는 하나의 느슨한 국가 혹은 연맹체처럼 보였다. 각 단위의 정치 및 경제 체제는 일종의 파시즘적 사회주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주요 자원은 합리적으로 배분되었으며, 권력은 특정 교육 및 심리 테스트를 통과한 이들의 투표로 선출된 소수의 운영 위원회에 위임되었다. 가족 조직이 지나치게 강조되지는 않았으나, 공통의 혈통을 가진 이들 사이의 유대감은 인정되었으며 아이들은 대체로 부모의 손에 길러졌다.

물론 인간의 태도나 제도와 닮은 점은 두 가지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쪽은 고도로 추상적인 요소가 다뤄지는 영역이었고, 다른 한쪽은 모든 유기 생명체에게 공통된, 분화되지 않은 근원적 충동이 지배하는 영역이었다. 또한 이스(Yith)의 위대한 종족이 미래를 탐사하며 마음에 드는 것을 의식적으로 채택한 결과, 몇 가지 유사성이 더해지기도 했다.

산업은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었기에 개별 시민이 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아주 적었다. 그 덕분에 넘쳐나는 여가 시간은 온갖 종류의 지적, 미적 활동으로 채워졌다. 과학은 믿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까지 발전해 있었으며, 예술 또한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비록 내가 꿈을 꾸던 그 시대의 예술은 이미 전성기와 정점을 지나 내려오던 시기였지만 말이다. 기술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엄청난 자극을

받으며 발전했다. 또한 태고의 시절에 일어난 거대한 지질학적 격변으로부터 대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유지해 내야만 했기에, 기술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다.

범죄는 놀라울 정도로 드물었으며, 매우 효율적인 치안 유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었다. 처벌은 특권 박탈이나 투옥에서부터 사형, 혹은 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혹한 형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범죄자의 동기를 면밀히 조사한 뒤에야 집행되었다. 전쟁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주로 내전의 형태를 띠었으나, 때로는 파충류나 문어 형상의 침입자들을 상대로 벌어지기도 했다. 혹은 남극을 거점으로 삼는, 날개가 달리고 별 모양의 머리를 가진 고대의 존재들, 즉 올드 원(Old Ones)을 상대로 싸우기도 했다. 전쟁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일단 발생하면 그 파괴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했다. 거대한 군대가 항상 대기 중이었는데, 이들은 카메라와 유사한 무기를 사용하여 엄청난 전기 효과를 일으켰다. 이 군대의 운용 목적은 좀처럼 언급되지 않았으나, 창문 하나 없이 어두컴컴한 고대 유적들과 지하 최하층에 놓인 거대하고 봉인된 함정 문들에 대해 끊임없이 느끼는 공포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현무암 폐허와 함정에 대한 이 공포는 대부분 암묵적인 암시, 혹은 은밀하게 속삭이는 듯한 소문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서가에 꽂힌 책들 중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었다. 이 주제는 위대한 종족 사이에서 완전히 금기시된 유일한 영역이었으며, 끔찍했던 과거의 투쟁은 물론, 언젠가 종족의 가장 명석한 정신들을 시간 너머로 대거 보내야만 할 미래의 위협과도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꿈과 전설을

통해 전해지는 다른 정보들도 불완전하고 단편적이었으나, 이 문제만큼은 훨씬 더 난해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모호한 고대 신화들은 이 주제를 애써 피하고 있었고, 어쩌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련된 모든 언급이 삭제되었을지도 모른다. 나와 다른 이들이 꾼 꿈속에서도 힌트는 유독 드물었다. 위대한 종족의 구성원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포로들의 정신을 통해서만 간신히 엿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 단편적인 정보들에 따르면, 공포의 근원은 기괴하고도 오래된 고대 종족이었다. 절반쯤 폴립 형태를 띤 이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들은, 헤아릴 수 없이 먼 우주의 공간을 가로질러 건너왔다. 그리고 약 6억 년 전, 지구와 태양계 내의 다른 세 행성을 지배했다.

우리가 이해하는 물질의 개념으로 볼 때,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물질적이었다. 그들의 의식 구조와 지각 매체는 지구상의 생명체와는 완전히 달랐다. 예를 들어, 그들의 감각에는 시각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들의 정신 세계는 시각적이지 않은, 기묘한 인상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이 존재하는 우주 영역에 있을 때면 일반적인 물질로 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물질적이었으며, 비록 그 형태는 기이할지언정 거처 또한 필요로 했다.

그들의 감각은 모든 물질적 장벽을 꿰뚫을 수 있었으나, 정작 그들의 실체는 물질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특정 형태의 전기 에너지는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도 있었다. 그들은 날개나 눈에 보이는 다른 부양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정신은 너무나 이질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이스의 위대한 종족조차 그들과는 어떠한 정신적 교류도 나눌 수 없었다.

이 존재들이 지구에 당도했을 때, 그들은 창문 하나 없는 탑들이 솟아오른 거대한 현무암 도시들을 건설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친 생명체들을 끔찍하게 사냥했다. 이스(Yith)라고 불리는, 은하계 너머의 저 모호한 세계에서 이스의 위대한 종족의 정신이 공허를 가로질러 날아온 것도 바로 그때였다. 이 불온하고 논란 많은 엘트다운 파편(Eltdown Shards)에 기록된 세계 말이다.

새로 찾아온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도구들을 이용해 포식자들을 손쉽게 제압했다. 그리고 그들을 지구 내부의 동굴로 몰아넣었다. 그 동굴들은 이미 이스 종족의 거처와 연결되어 그들이 살기 시작한 곳이었다. 그 후 이스 종족은 동굴 입구를 봉쇄한 채 생명체들을 운명에 맡겨 버렸다. 그러고는 그들의 거대한 도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몇몇 중요한 건물들은 남겨두었는데, 이는 무관심이나 대담함, 혹은 과학적·역사적 열의 때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미신에 가까운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겁의 시간이 흐르면서, 내핵의 세계에서 엘더 싱(Elder Things)들이 세력을 키우며 번성하고 있다는 불길하고 모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위대한 종족이 거주하는 작고 외딴 도시들, 그리고 위대한 종족이 아직 정착하지 않은 버려진 고대 도시들에서 유독 끔찍한 형태의 습격이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그곳들은 지하의 심연으

로 이어지는 통로들이 제대로 봉인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감시받지 못하던 곳들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더욱 철저한 예방 조치가 취해졌고, 수많은 통로가 영원히 폐쇄되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엘더 싱들이 돌출할 경우를 대비해, 전략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봉인된 함정 문을 남겨둔 통로도 몇 군데 있었다. 한편, 과거의 지질학적 변화로 인해 일부 통로가 막히고 정복당한 존재들이 남긴 외부 세계의 구조물과 유적들이 서서히 사라져 가던 와중에, 그 지질 변화로 인한 새로운 균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엘더 씽(Elder Things)의 침입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음이 분명하다. 그 사건이 이스의 위대한 종족에게 남긴 심리적 상흔은 영구적이었기 때문이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의 고정된 심리 상태 탓에, 그 생명체들의 외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명확한 단서를 얻을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이 괴물 같은 가소성을 지녔으며, 때때로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암시만이 모호하게 전해질 뿐이었다. 또한 거대한 바람을 조종하여 군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파편적인 속삭임도 들려왔다. 그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기이한 휘파람 소리, 그리고 다섯 개의 원형 발가락 자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발자국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이스의 위대한 종족이 그토록 절박하게 두려워하던 파멸이 다가오고 있음은 자명했다. 그 파멸이란, 언젠가 수백만 개의 명석한 정신을

시간의 심연 너머로 보내, 더 안전한 미래의 낯선 육체 속에 안착시켜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이 재앙은 결국 고대의 존재들이 마침내 침입에 성공하면서 벌어질 일이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정신 투사들은 분명 이러한 공포를 예견해 왔으며, 위대한 종족은 탈출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도 이 재앙에 직면하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의 침공이 외부 세계를 다시 점령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복수에 가까운 행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위대한 종족은 행성의 후기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의 정신 투사 결과에 따르면, 그 뒤를 이은 종족들은 이 괴물 같은 존재들의 방해 없이 평온하게 오고 갔다. 빛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들에게는, 변화무쌍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지표면보다 지구의 깊은 심연이 더 적합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 존재들이 영겁의 세월 속에서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도망친 정신들이 머물게 될 인류 이후의 딱정벌레 종족 시대에는 그들이 완전히 죽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져 있었다.

그사이 위대한 종족은 신중하게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 주제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 일상적인 대화와 기록에서 격렬하게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력한 무기들을 끊임없이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봉인된 함정 문과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고대의 탑 주변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포의 그림자가 언제나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은 매일 밤 나의 꿈이 희미하고 파편화된 메아리를 실어 나르던 세계다. 그 메아리에 담긴 공포와 전율이 어떤 것인지, 나는 감히 온전히 설명할 길이 없다. 그 감정들은 실체가 없는 어떤 성질, 즉 가짜 기

억이 주는 날카로운 감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학문적 탐구를 통해 나는 이러한 감정들에 맞설 방어책을 점차 마련할 수 있었다. 이성적인 심리학적 설명들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 여기에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찾아온 익숙함이라는 미묘한 힘이 더해져 나를 구원해 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고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공포는 때때로 잠시씩 다시 찾아오곤 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지는 못했다. 1922년 이후, 나는 일과 휴식이 어우러진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

수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내가 겪은 일들과 그와 유사한 사례들, 그리고 관련된 민속학적 기록들을 하나로 정리해 발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서 나는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는 일련의 논문들을 준비했다. 꿈속에서 기억해낸 기이한 형상과 장면들, 장식 문양과 상형문자들을 투박한 스케치로 곁들여 설명하기도 했다. 이 글들은 1928년과 1929년 사이 미국 심리학회 학술지에 여러 차례 게재되었으나, 그리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사이 나는 꿈의 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남기는 일을 계속했다. 비록 쌓여가는 기록물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방대한 양에 이르렀음에도 말이다.

1934년 7월 10일, 심리학회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내게 전달되었다. 이 편지는 그 모든 미친 시련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끔찍한 국면을 여는 서막이었다. 편지의 발신지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의 필바라였으며, 서명된 이름의 주인공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 꽤 이름난 광산 기술자였다. 편지 안에는 매우 기묘한 스냅사진 몇 장이 동봉되어 있었

다. 나는 여기 편지의 전문을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이 글과 사진들이 내게 얼마나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는지, 독자라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동안 나는 망연자실하여 믿기지 않는 심정이었다. 내 꿈을 물들였던 그 전설들 속에 어떤 사실적 근거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자주 생각하긴 했으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과거의 잃어버린 세계로부터 이토록 실체적인 흔적이 살아남아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사진들이었다. 차갑고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성을 담은 그 사진 속에는, 모래 언덕을 배경으로 마모되고 물결무늬가 패인 채 풍파에 깎여나간 석조 블록들이 놓여 있었다. 약간 볼록한 윗면과 약간 오목한 아랫면을 가진 그 돌들은 그 자체로 이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돋보기를 들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거칠게 깎이고 파인 표면 사이로 거대한 곡선 문양과 간간이 보이는 상형문자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내게 그토록 끔찍한 의미로 다가왔던 바로 그 문양들이었다.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는 편지를 공개한다.

서오스트레일리아, 필바라, 댐피어 가 49번지, 1934년 5월 18일.

너새니얼 윙게이트 피슬리 교수,

미국 심리학회 전달,

30, E. 41st Str.,

미국, 뉴욕시

친애하는 선생님께,

최근 퍼스의 E. M. 보일 박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방금 보내준 당신의 기사들이 담긴 논문들도 함께 읽었습니다. 덕분에 이곳 금광 지대 동쪽, 그레이트 샌디 사막에서 내가 목격한 몇 가지 사실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당신이 묘사했던 거대한 석조물과 기이한 문양, 그리고 상형문자로 가득한 고대 도시에 관한 독특한 전설들을 돌이켜볼 때, 내가 발견한 것이 매우 중요한 무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흑인 원주민들은 언제나 "무늬가 새겨진 거대한 돌"에 대해 떠들어대곤 했으며, 그런 물건들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이 돌들을 자신들의 종족 전설에 등장하는 '부다이'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 짓곤 합니다. 부다이는 거대한 노인으로, 팔을 베고 누워 지하에서 영겁의 세월 동안 잠들어 있다가 언젠가 깨어나 세상을 집어삼킬 존재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거대한 돌로 지어진, 아주 오래되고 반쯤 잊힌 지하 오두막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그곳에는 통로가 끝없이 아래로 이어져 있으며, 그 안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과거 전투 중에 도망치던 전사들이 그 지하 오두막으로 들어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사들이 사라진 직후, 그곳에서부터 소름 끼치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주민들이 하는 말에 대단한 사실이 담겨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내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년 전, 동쪽으로 약 500마일 떨어진 사막 지대에서 탐사를 하던 중 나는 기묘하게 다듬어진 석재들을 발견했습니다. 크기는 대략 3×2×2피트 정도였는데, 풍화와 침식이 극에 달해 표면이 온통 움푹 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말했던 그 문양들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이서 살펴보니, 세찬 풍화 작용에도 불구하고 깊게 새겨진 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원주민들이 설명하려 애썼던 것과 똑같은, 기이한 곡선들이었습니다. 모래 속에 거의 파묻힌 것들도 있었으나, 지름이 약 4분의 1마일에 달하는 원형 구역 안에 서른 혹은 마흔 개 정도의 석재가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부 돌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주변을 샅샅이 뒤져 더 많은 돌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도구들을 이용해 그곳의 지형을 면밀히 측정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띤 돌 블록 10여 개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으니, 함께 동봉한 인화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수집한 정보와 사진들을 퍼스에 있는 정부 당국에 넘겼으나,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보일 박사를 만났는데, 그는 미국 심리학회 학술지에 실린 당신의 논문들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우연히 그 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박사는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자 그는 무척 흥분하며, 그 돌들과 그 위의 문양들이 바로 당신이 꿈속에서 보았고 전설 속에서 묘사된 것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박사는 당신의 논문이 실린 잡지 대부분을 내게 보내주었고, 나는 당신의

삽화와 설명을 보고 내가 발견한 돌들이 분명 당신이 말하는 바로 그 종류라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동봉한 인화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조만간 보일 박사로부터 직접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상상해 온 그 어떤 것보다도 오래된, 미지의 문명이 남긴 흔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들은 당신들이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산 기술자로서 지질학에 관한 지식을 조금 갖춘 제 입장에서는, 이 석재들이 너무나도 오래되어 공포심마저 느껴질 정도입니다.

석재들은 대부분 사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중 하나는 거의 확실히 기묘한 종류의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듯합니다. 또한 이 돌들은 물의 침식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지역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바다 밑에 잠겨 있다가, 이 석재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수면 위로 솟아오른 것만 같습니다. 이는 수십만 년, 혹은 하늘만이 아실 만큼 훨씬 더 긴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일 것입니다. 저는 차마 그 시간을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설과 그에 얽힌 모든 것을 추적하며 보여준 당신의 성실한 노력을 생각하면, 당신이 사막으로 탐사대를 이끌고 고고학적 발굴을 시도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단체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보일 박사와 나 모두 기꺼이 그 작

업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든 굴착 작업을 위해 광부 열두 명 정도는 모을 수 있습니다. 흑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이 특정한 장소에 대해 거의 광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보일 박사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발견을 하든, 혹은 그 공로를 인정받든, 당신이 우선권을 갖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필바라에서 모터 트랙터를 타고 약 4일 정도 이동하면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비를 운반하려면 트랙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위치는 워버턴이 1873년에 지나갔던 경로에서 다소 서남쪽에 있으며, 조안나 샘에서 동남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필바라에서 출발하는 대신 디 그레이 강을 따라 배로 물자를 실어 나르는 방법도 있겠으나,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논의해도 좋습니다. 대략적인 좌표는 남위 22° 3′ 14″, 동경 125° 0′ 39″ 지점입니다. 기후는 열대성이라 사막의 환경이 매우 혹독할 것입니다. 어떤 탐사든 겨울철인 6월이나 7월, 혹은 8월에 진행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연락을 주신다면 기꺼이 응하겠으며, 귀측에서 세우시는 어떤 계획이든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귀하의 논문들을 검토한 뒤, 저는 이 모든 사건이 지닌 심오한 의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일 박사가 조만간 서신을 보낼 것입니다. 급한 연락이 필요하다면 무선 통신을 통해 퍼스까지 전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로버트 B. F. 맥켄지 올림.

이 편지가 전해진 직후의 상황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미스카토닉 대학교의 후원을 이끌어낸 것은 내게 커다란 행운이었으며, 맥켄지 씨와 보일 박사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현지의 제반 사항을 정리하는 데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대중에게 조사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목적을 상세히 알릴 경우, 저급한 신문들이 이 사건을 자극적이고 희화화된 방식으로 다룰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언론 보도는 절제된 편이었으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유적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여정과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록되어 있었다.

대학 지질학과의 윌리엄 다이어 교수(1930~31년 미스카토닉 남극 탐사대장)와 고대사학과의 퍼디낸드 C. 애슐리 교수, 그리고 인류학과의 타일러 M. 프리본 교수가 내 아들 윙게이트와 함께 동행했다. 서신을 주고받던 맥켄지는 1935년 초 아컴에 도착해 우리의 마지막 준비 작업을 도왔다. 그는 쉰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매우 유능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 박학다식할 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의 모든 여건에 대해서도 깊은 조예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필바라에 대기시킬 트랙터들을 이미 준비해 두었고, 우리는 강을 거슬러 그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흘수(물에 잠기는 깊이)가 얕은 화물선을 한 척 빌렸다. 우리는 모래 한 알 한 알을 일일이 걸러내며, 원래 위치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 하나 건드리지 않고 가장 세심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발굴할 준비를 마쳤다.

1935년 3월 28일, 우리는 낡고 삐걱거리는 렉싱턴호를 타고 보스턴을 떠났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홍해를 거쳐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한가로울 만큼 여유로웠다. 낮게 깔린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의 모래 해안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얼마나 우울해했는지, 그리고 트랙터들이 마지막 짐을 부리던 그 투박한 광산 마을과 황량한 금광 지대를 얼마나 혐오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보일 박사는 연배가 좀 있는 인자하고 지적인 분이었다. 그는 심리학에 해박하여 내 아들과 나를 상대로 긴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마침내 열여덟 명의 일행이 모래와 바위가 깔린 메마른 땅을 달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 대부분은 묘한 불편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 5월 31일 금요일, 우리는 드 그레이 강의 지류를 건너 완전히 황량한 영역으로 들어섰다. 전설 속의 고대 세계가 실재하는 이곳으로 나아갈수록, 내 안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차올랐다. 나를 괴롭히는 불길한 꿈과 가짜 기억들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채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다.

6월 3일 월요일, 우리는 땅에 반쯤 파묻힌 석재 블록들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건축물의 벽면과 모든 면에서 판박이인, 거대한 사이클롭스식 석조물의 파편을—실제 현실 속에서—내 손으로 직접 만졌을 때의 그 감정을 나는 차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그곳에는 분명한 조각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수년간 나를 괴롭힌 악몽과 혼란스러운 연구를 통해 지옥의 형상으로 각인된, 그 곡선형 장식 문양의 일부를 알아차린 순간 내 손은 떨려왔다.

한 달 동안 땅을 판 결과, 마모와 붕괴가 제각기 다른 단계에 놓인 석재 블록 약 1,250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부분은 윗면과 아랫면이 곡선형으로 깎인 거대한 석조물이었다. 그중 일부는 크기가 더 작고 평평했으며, 표면이 매끄럽고 사각형이나 팔각형 모양을 띠고 있었다. 마치 내 꿈속에 나타나는 바닥이나 보도블록 같은 형태였다. 반면 몇몇 블록은 유독 거대했는데, 곡선을 그리거나 비스듬히 깎여 있어 아치나 둥근 창틀의 일부, 혹은 천장의 궁륭이나 교차 궁륭을 만드는 데 쓰였음을 짐작게 했다.

북쪽과 동쪽으로 더 깊이 파 내려갈수록 발견되는 블록의 수는 늘어났다. 하지만 그 블록들이 어떤 규칙으로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흔적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다이어 교수는 이 파편들이 품은 가늠할 수 없는 세월에 경악했고, 프리본은 파푸아와 폴리네시아의 아주 오래된 전설 속 불길한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상징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흩어진 블록들의 상태와 배치 방식은, 아득한 시간의 순환과 우주적 야만성이 빚어낸 지질학적 격변을 침묵 속에 웅변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경비행기가 한 대 있었다. 내 아들 윙게이트는 비행기를 타고 고도를 높여가며, 모래와 바위로 뒤덮인 황무지를 샅샅이 살피곤 했다. 그는 지형의 높낮이가 변했거나 흩어진 암석들이 길처럼 이어진 흔적을 찾아, 희미하고 거대한 윤곽이 있는지 확인하려 애썼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전무했다. 어느 날 무언가 의미 있는 형상을 포착했다고 생각하면, 다음 비행 때 그 자리는 바람에 흩날린 모래 때문에 다른 실체 없는 형상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나처럼 스쳐 지나간 한두 번의 형상은 내게 기묘하고 불쾌한 잔상을 남겼다. 그 형상들은 마치 내가 꿈에서 보았거나 어디선가 읽었으나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무언가와, 소름 끼칠 정도로 맞물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들은 끔찍할 정도로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그 기분 탓에 나는 북쪽과 북동쪽을 향한 저 혐오스럽고 황량한 지형을, 자꾸만 몰래 두려운 눈초리로 훑어보게 되었다.

7월 첫째 주 무렵, 나는 북동쪽의 그 광활한 지역을 떠올릴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다. 공포와 호기심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를 괴롭힌 것은,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듯한 끈질기고도 당혹스러운 환상이었다. 나는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이 생각들을 떨쳐내려 온갖 심리적 방책을 다 써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불면증 또한 나를 옥죄어 왔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불면을 반기기도 했는데, 잠을 이루지 못할수록 꿈을 꾸는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다. 나는 밤늦게 사막을 홀로 길게 걷는 습관이 생겼다. 발걸음은 대개 북쪽이나 북동쪽을 향했다. 마치 내 안에서 솟구치는 기묘한 충동들이 나를 그곳으로 미세하게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다.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거의 파묻혀 있던 고대 석조물의 파편들이 발에 채이곤 했다. 우리가 출발했던 곳보다는 눈에 띄는 석재가 적었지만, 지표면 아래에는 분명 엄청난 양의 유적이 잠들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지면은 캠프가 있던 곳보다 고르지 않았고, 때때로 몰아치는 강풍이 모래를 기괴한 모양의 언덕으로 쌓아 올렸다. 모래는 어떤 흔적을 덮어버리는가 하면, 또 어떤 고대의 돌들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발굴 작업이 이 구역까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

랐지만, 동시에 무언가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분명 내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원인을 알 수 없었기에 그 불안함은 더욱 가중될 뿐이었다.

내 신경이 얼마나 허약한 상태인지는, 어느 날 밤 산책 중에 마주한 기이한 발견에 내가 보인 반응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7월 11일 저녁이었다. 보름에 가까운 볼록한 달이 떠올라 신비로운 언덕들 위로 기묘하고 창백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조금 더 멀리 거닐던 나는, 지금까지 마주쳤던 그 어떤 것과도 확연히 달라 보이는 거대한 돌 하나를 발견했다. 돌은 거의 완전히 덮여 있었지만, 나는 몸을 굽혀 손으로 모래를 걷어냈다. 그 후 손전등을 비춰 달빛을 보충해가며 그 물체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 돌은 이전에 보았던 다른 거대한 암석들과는 달랐다.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곳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사각형으로 깎여 있었다. 또한, 이미 익숙해진 화강암이나 사암, 혹은 간혹 발견되던 콘크리트 파편들과는 전혀 다른, 어두운 현무암질 물질로 이루어진 듯했다.

나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보고는, 전력을 다해 캠프로 달아났다. 그것은 완전히 무의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주였다. 텐트 근처에 다다라서야 내가 왜 달렸는지 비로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음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기괴하고 검은 돌은 내가 꿈속에서 보았고, 책에서도 읽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영겁의 세월을 이어온 전설 속 가장 끔찍한 공포와 맞닿아 있는 물건이었다.

그 돌은 전설 속 위대한 종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현무암질 고대 건축물의 일부였다. 창문 하나 없이 높게 솟은 그 폐허들은, 지구의 심연 속에서 부패하며 살아가는 기괴한 존재들이 남긴 것이었다. 반쯤 실체화된 그 외계의 존재들은 침울하게 도사리고 있었으며, 그들이 내뿜는 바람 같고 보이지 않는 힘을 막기 위해 함정 문들은 봉인되었고 잠들지 않는 파수꾼들이 배치되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새벽녘이 되자, 신화 속의 그림자 따위에 휘둘려 마음을 어지럽혔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공포에 질릴 게 아니라, 오히려 발견자로서의 열정을 품었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내가 찾아낸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렸다. 다이어와 프리본, 보일, 그리고 내 아들과 나는 그 기이한 암석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난관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돌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밤새 불어온 바람이 움직이는 모래 언덕의 형세를 완전히 바꿔 놓은 상태였다.

이제 내 이야기에서 가장 결정적이고도 어려운 부분에 이르렀다. 이 대목이 유독 힘겨운 이유는, 나조차도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때로 나는 내가 꿈을 꾸거나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불쾌할 정도의 확신을 느낀다. 만약 내 경험이 객관적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파장이 얼마나 엄청날지 생각하면, 바로 그 느낌 때문에 나는 이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내 아들은 전문적인 심리

학자로서 나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전하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아들에게 맡기려 한다.

우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외적인 개요부터 설명하겠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7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1시가 되기 직전 몸을 일으켰을 때, 북동쪽 지형을 향해 느껴지는 그 기묘한 불쾌감이 평소처럼 나를 괴롭혔다. 나는 평소처럼 밤 산책을 나섰다. 캠프 구역을 벗어날 때 마주쳐 인사를 나눈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광부 터퍼뿐이었다.

보름달을 조금 넘긴 달이 맑은 하늘에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빛은 고대의 모래 언덕을 하얗고 문드러진 병색처럼 적셨는데, 내 눈에는 그 빛이 어딘가 모르게 무한히 사악해 보였다. 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았고, 이후 거의 다섯 시간 동안 바람이 다시 불어오지 않았다. 이는 밤새 잠들지 않았던 터퍼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터퍼는 내가 창백하고 비밀을 품은 듯한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 북동쪽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했다.

새벽 3시 30분경,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캠프의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고 텐트 세 동이 쓰러졌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으며, 사막은 여전히 저주받은 듯한 창백한 달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일행이 텐트를 수습하는 사이 내가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평소 내가 자주 산책을 나갔던 것을 알기에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인 세 명만은 공기 중에 감도는 불길한 기운을 느낀 듯했다. 맥켄지는 프리본 교수에게 이것이 원주민들의 민담에서 비롯된 공포라고 설명했다. 원주민들은 맑은 하늘 아래서 아주 가끔씩 모래 사막을 휩쓸고 지나가는 강풍에 대해, 악의적인 신화들을 엮어 기이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다. 그 속삭임에 따르면, 그런 바람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지하의 거대한 돌집에서 불어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커다란 표석들이 흩어져 있는 곳 근처가 아니면 결코 느낄 수 없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4시가 다 되어갈 무렵, 돌풍은 시작될 때만큼이나 갑작스럽게 잦아들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낯설고 기묘한 형상의 모래 언덕들만이 남았다.

다섯 시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곰팡이처럼 부풀어 오른 달이 서쪽으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나는 모자도 쓰지 못한 채 누더기가 된 차림으로 캠프에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얼굴은 굶히고 피칠갑이 되어 있었으며, 손에는 손전등조차 없었다. 대다수의 대원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이어 교수는 텐트 앞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거의 광기에 사로잡힌 듯한 내 모습을 본 교수는 보일 박사를 불렀다. 두 사람은 나를 내 침상에 눕히고 안정을 취하게 도왔다. 소란스러운 기척에 잠에서 깬 내 아들도 곧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들은 모두 나를 억지로라도 눕혀 잠을 청하게 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게 잠은 찾아오지 않았다. 심리 상태가 매우 기이했다. 이전에 겪어본 그 어떤 상태와도 달랐다.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들에게 반드시 말을 해야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나는 초조한 기색으로 내 상태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피로를 느껴 모래 위에 잠시 누워 낮잠을 잤다고 말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끔찍한 꿈을 꾸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강풍에 잠이 깼는데, 극도로 예민해진 신경이 결국 끊어져 버렸다고 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다 반쯤 파묻힌 돌들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몰골이 이토록 엉망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참을 잠들었던 모양이라며, 그 때문에 이토록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가 직접 보았거나 경험한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암시하지 않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했다. 대신 나는 이번 탐사 전체를 바라보는 내 견해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북동쪽 방향으로 진행 중인 모든 발굴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간곡히 권고했다.

내가 내세운 근거는 누가 봐도 궁색했다. 유물이 발견되는 블록이 부족하다거나, 미신을 믿는 광부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거나, 대학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식의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중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었으며, 설령 사실이라 해도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당연하게도 아무도 나의 새로운 요구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내 건강을 무척이나 걱정하던 내 아들조차도 말이다.

다음 날 나는 몸을 일으켜 캠프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발굴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작업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약속 하나를 받아냈다. 아들이 내

가 손대지 말기를 바랐던 그 지역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남서쪽으로 천 마일 떨어진 퍼스까지 비행기로 나를 태워다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만약 내가 본 것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다면, 비웃음을 살지언정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경고라도 해볼 생각이었다. 현지의 민담을 잘 아는 광부들이라면 내 말을 믿어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들은 내 뜻을 존중하여 바로 그날 오후에 조사를 시작했다. 비행기는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모든 지형 위를 훑으며 날아갔다. 하지만 내가 발견했던 것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 기이한 현무암 덩어리 때와 마찬가지였다. 움직이는 모래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순간, 극심한 공포에 질려 그 경외로운 대상을 놓쳐버린 것이 후회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을 찾지 못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내 모든 경험이 환상이었다고 믿고 싶다. 특히 내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그 지옥 같은 심연이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윙게이트는 탐사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면서도, 7월 20일에 나를 퍼스까지 데려다주었다. 그는 리버풀행 증기선이 출항하는 25일까지 내 곁에 머물렀다. 이제 엠프레스호의 선실에 앉아, 나는 이 모든 사건을 길고도 격렬하게 곱씹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내 아들에게만큼은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일을 더 널리 퍼뜨릴지 말지는 아들의 결정에 맡길 것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나는 이미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알려진 나의 배경을 정리해 두었

다. 그리고 그 끔찍했던 밤, 내가 캠프를 비운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서술하려 한다.

신경은 곤두서 있었고, 북동쪽을 향한 그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뒤섞인 기묘한 기억의 충동은 나를 일종의 비정상적인 열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사악하게 타오르는 달빛 아래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아갔다. 모래에 반쯤 파묻힌 채, 이름도 잊힌 태고의 시대가 남긴 거대한 사이클롭스식 석조물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이 괴물 같은 황무지가 품은 헤아릴 수 없는 세월과 짓눌러오는 공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압박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은 꿈과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전설들, 그리고 사막과 조각된 돌들을 두려워하는 현지인들과 광부들의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마치 기괴한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꾸역꾸역 발걸음을 옮겼다. 혼란스러운 망상과 강박, 그리고 가짜 기억들이 나를 점점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나는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았다던 그 석조 유적들의 윤곽을 떠올려 보았다. 그런데 왜 그 모습이 그토록 불길하면서도 동시에 낯익게 느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무언가가 내 기억의 빗장을 더듬으며 덜컥거리고 있었고, 동시에 또 다른 미지의 힘은 그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다. 창백한 모래 언덕은 마치 얼어붙은 파도처럼 위아래로 굽이치고 있었다. 딱히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나는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무언가에 홀린 듯 나아갔다. 꿈의 잔상이 깨어 있는 현실로 밀려들었다. 모래 속에 박힌 거대한 석조물들은

마치 인류 이전의 존재들이 쌓아 올린 끝없는 방과 복도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위대한 종족의 포로가 된 정신으로서 수년간 익히 보아온 상형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때때로 나는 그 전지전능한 원뿔형의 공포들이 익숙한 과업을 수행하며 움직이는 환영을 보았다. 혹여 고개를 숙였을 때 나의 모습이 그들과 닮아 있을까 두려워 차마 내려다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모래에 덮인 석조물과 방, 복도를 동시에 보았다. 사악하게 타오르는 달과 빛나는 수정 등불을 보았고, 끝없는 사막과 창밖에서 일렁이는 양치식물과 소철을 함께 보았다. 나는 깨어 있는 동시에 꿈을 꾸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멀리, 아니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걸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낮의 바람이 걷어낸 거대한 돌무더기를 처음 발견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한곳에 모여 있는 돌덩이로는 가장 거대한 규모였다. 그 광경은 너무나 강렬해서, 방금까지 나를 사로잡았던 아득한 태고의 환영들이 순식간에 흩어져 사라질 정도였다. 다시 눈앞에는 황량한 사막과 사악한 달, 그리고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과거의 파편들만이 남았다. 나는 돌무더기 가까이 다가가 발을 멈춘 뒤, 손전등을 비추어 흩어진 돌더미를 낱낱이 살폈다. 모래 언덕이 바람에 쓸려 내려간 자리에는, 폭이 약 40피트, 높이가 2피트에서 8피트 사이인 거석과 작은 파편들이 불규칙하고 둥근 덩어리를 이룬 채 놓여 있었다.

처음부터 깨달았다. 이 돌들에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특성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돌의 개수가 유례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달빛과 손전등 불빛이 뒤섞인 가운데 모래에 깎인 문양들을 훑어 내려가던 내 시선은 무언가에 붙잡히고 말았다. 이전에 발견했던 표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미묘한 것이었다. 돌덩이 하나를 볼 때는 느껴지지 않던 감각이, 여러 개의 돌을 거의 동시에 훑어 내려갔을 때 비로소 밀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다. 수많은 돌덩이에 새겨진 곡선 문양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장식적 구상을 이루는 파편들이었다. 영겁의 세월에 깎여 나간 이 황무지에서, 나는 처음으로 원래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석조 구조물을 마주했다. 비록 무너지고 파편화된 상태이긴 했으나, 분명한 형태를 갖춘 채 존재하고 있었다.

낮은 곳을 딛고 올라선 나는 힘겹게 모래 더미를 기어올랐다. 여기저기 손가락으로 모래를 걷어내며, 눈앞에 보이는 형상들의 크기와 모양, 양식, 그리고 문양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려 애를 썼다. 한참을 그러고 있자니, 과거에 이곳에 존재했던 구조물의 정체와 태고의 석조물 광활한 표면을 뒤덮고 있었을 문양들이 어렴풋이 짐작되었다. 꿈속에서 언뜻 보았던 장면들과 눈앞의 광경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에 나는 공포를 느끼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곳은 한때 높이가 3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복도였을 것이다. 바닥은 팔각형 석재로 깔려 있었고, 머리 위로는 견고한 아치형 천장이 이어져 있었다. 복도 오른쪽으로는 방들이 줄지어 있었을 것이며, 저 멀리 끝부분에는 기묘하게 기울어진 경사로가 더 깊은 지하로 이어져 내려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자 나는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단순히 눈앞에 놓인 석조물들이 보여준 정보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대체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이 지층이 지하 아주 깊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위로 이어지는 평면이 내 뒤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았는가? 기둥 광장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지하 통로가 내 위쪽 한 층, 왼편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기계들이 가득한 방과 중앙 기록 보관소로 이어지는 오른쪽 터널이 아래로 두 층 더 내려가야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았는가? 그리고 맨 아래, 네 층 아래에 금속 테두리가 둘러진 그 끔찍한 함정 문이 하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꿈의 세계로부터 침입한 이 기이한 지식에 혼란을 느낀 나는, 온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길한 감각이 나를 덮쳤다. 거대한 돌무더기 중앙 근처, 움푹 파인 곳에서부터 서늘하고 은밀한 공기가 가느다란 줄기처럼 타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순간, 이전에도 그랬듯 환영이 걷히고 눈앞에는 다시 불길한 달빛과 침울한 사막, 그리고 고대 지질 시대의 석조물들이 쌓여 만들어낸 거대한 고분만이 나타났다.

실재하며 만질 수 있는 무언가가, 그러나 밤의 신비로운 암시를 무한히 머금은 무언가가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공기의 흐름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뿐이었다. 표면의 어지럽게 흩어진 돌덩이들 아래에, 거대한 공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거대한 석조물들 사이에 숨겨진 광활한 지하 오두막에 관한 불길한 원주민 전설이었다. 그곳은 온갖 공포가 벌어지고 거대한 바람이 태어나는 곳이라 했다. 이어 내 꿈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희미하고 가짜 같은 기억들이 정신을 잡아끄는 것이 느껴졌다. 내 발밑에는 대체 어떤 장소가 놓여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막 마주하려는 것이, 고대의 신화와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악몽의 근원이 되는 저 원시적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체란 말인가? 망설임은 찰나에 불과했다. 단순한 호기심과 과학적 열망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점점 커져가는 공포를 억누르며 나를 앞으로 몰아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힌 듯,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고,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힘을 쥐어짜 내며 거대한 돌 파편들을 하나씩 밀어냈다. 마침내 돌 틈 사이로 강한 바람이 솟구쳐 올랐다. 그 축축한 기운은 사막의 건조한 공기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검은 균열이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가 옮길 수 있는 모든 파편을 치워내자, 내가 몸을 밀어 넣기에 충분할 만큼 넓은 틈새 사이로 병색이 완연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횃불을 꺼내어 그 입구 안쪽으로 눈부신 빛줄기를 쏘아 보냈다. 내 발밑에는 무너져 내린 석조물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그것들은 북쪽을 향해 약 45도 각도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었는데, 분명 아주 오래전 위쪽에서 무언가 붕괴하며 쏟아져 내려온 결과물이었다. 석조물 더미와 지면 사이에는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심연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어둠의 윗부분에는 거대한 하중을 견디

다 못해 뒤틀린 듯한 아치형 천장의 흔적이 보였다. 그 지점부터는 사막의 모래가 지구의 태고 시절에 세워진 거대한 구조물의 바닥 위에 바로 내려앉아 있는 듯했다. 영겁에 걸친 지질학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이 구조물이 보존될 수 있었는지,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그토록 불확실한 심연 속으로 홀로 갑작스럽게 내려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도 살아있는 그 누구도 나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은 광기의 정점처럼 느껴진다. 어쩌면 정말로 미친 짓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심연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지금까지 나의 행로를 이끌어온 것과 같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과 운명적인 이끌림이 다시금 분명하게 나타났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손전등을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나는 입구 아래로 이어진 불길하고 거대한 경사면을 미친 듯이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때로는 발 디딜 곳과 잡을 곳을 찾아 정면을 향해 내려갔고, 때로는 위태롭게 매달려 더듬거리며 거대한 석조 더미를 마주 보기도 했다. 양옆으로는 조각된 채 무너져 내리는 석조 벽들이 멀리서 손전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내 앞에는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암흑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아래로 기어 내려가는 동안 시간의 흐름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암시와 형상들로 들끓었고, 그 탓에 현실의 모든 사물은 아득히 먼 곳으로 물러난 듯 느껴졌다. 육

체적 감각은 마비되었으며, 공포조차도 유령처럼 형체 없는 가고일이 되어 나를 무력하게 비웃으며 가만히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나는 무너진 돌덩이와 형체를 알 수 없는 파편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모래와 쓰레기가 흩뿌려진 평평한 바닥에 다다랐다. 양옆으로는 약 3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거대한 벽이 솟아 있었고, 그 벽은 거대한 궁륭형 아치로 이어졌다. 벽면에 조각이 새겨져 있다는 것 정도는 겨우 알아챌 수 있었으나, 그 조각이 무엇을 형상화했는지는 도저히 인지할 수 없었다.

나를 가장 압도한 것은 머리 위로 펼쳐진 천장의 구조였다. 손전등의 불빛이 천장 끝까지 닿지는 못했지만, 기괴하게 솟은 아치의 아랫부분만큼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이 내가 고대의 세계를 꿈꾸며 수없이 보았던 형상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일치했기에, 나는 처음으로 몸을 떨며 공포를 느꼈다.

등 뒤 높은 곳에서는 희미하게 빛나는 잔상이 멀리 떨어진 달빛 세상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눈에서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만약 빛을 잃는다면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조각의 흔적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왼쪽 벽을 향해 나아갔다. 쓰레기가 널브러진 바닥은 아까 내려왔던 경사면만큼이나 통과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간신히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갔다. 어느 지점에 이르러 나는 바닥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돌덩이들을 밀어내고 잔해들을 발로 차 치웠다. 그러다 나는 거대한 팔각형 돌들을 발견하고

는 몸서리쳤다. 뒤틀린 표면이 여전히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돌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불길한 익숙함을 풍기고 있었다.

벽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까지 다가가, 나는 횃불을 비추어 닳아버린 조각의 흔적들을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훑었다. 과거에 물이 흘러들었던 흔적인지 사암 표면이 깎여 나가 있었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침전물들도 달라붙어 있었다. 곳곳의 석조물은 매우 느슨하게 풀려 있거나 뒤틀려 있었다. 대지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 원시적이고 은밀한 건축물이 과연 얼마나 더 오랜 세월 동안 그 형태의 흔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정작 나를 가장 흥분시킨 것은 조각 그 자체였다. 세월에 깎여 부스러진 상태였음에도, 가까이서 살펴보니 그 형상을 추적하기는 비교적 수월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마치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너무나 완벽하고 친숙하게 다가와서, 내 상상력은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 고색창연한 석조물에 새겨진 주요 특징들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떤 신화들을 빚어낸 창조자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었을 그 형상들은, 기묘한 지식의 흐름 속에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기억을 잃었던 시기에 어찌 된 일인지 그 지식들이 내 눈에 들어왔고, 그것들은 내 잠재의식 속에 생생한 이미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기이한 문양의 선 하나, 소용돌이 하나가 어떻게 지난 20년 넘게 내가 꾸어온 꿈과 그토록 정확하고 세밀하게 일치할 수 있단 말인가. 밤마다, 그것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끈질기게 내 수면 속을 파

고들었던 그 미묘한 명암과 뉘앙스를, 도대체 어떤 모호하고 잊힌 도상학이 이토록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우연도, 막연한 닮은꼴도 아니었다. 내가 서 있는 이 수천 년 된, 영겁의 세월 속에 숨겨진 복도는 분명하고도 절대적으로, 내가 꿈속에서 아컴 크레인 가의 내 집만큼이나 친숙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 물론 꿈속에서 본 그곳은 부식되지 않은 전성기의 모습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덜 실재적인 것은 아니었다. 나는 완전히,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그 공간에 동화되어 있었다. 내가 머물고 있는 특정한 구조물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끔찍한 꿈의 고대 도시 안에서 그 구조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무수한 세월의 변화와 파괴를 피해 살아남은 그 구조물과 도시의 그 어느 지점이라도, 내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공포스럽고도 본능적인 확신과 함께 깨달았다.

도대체 신의 이름으로 묻건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태고의 석조 미궁 속에 거주했다는 존재들에 관한 그 오래된 이야기들 뒤에는, 대체 어떤 끔찍한 실체가 숨겨져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을 갉아먹던 그 거대한 공포와 혼란을 말로 다 표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이곳을 알고 있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많은 거대한 건축물들이 먼지와 잔해로 변해 사막 아래 묻히기 전, 내 머리 위를 덮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몸서리치며 생각했다. 이제는 희미한 달빛이라도 시야에 두어 길

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도망치고 싶은 갈망과, 타오르는 호기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뒤섞인 열병 사이에서 나는 갈팡질팡했다. 꿈을 꾸던 그 시절 이후로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기괴하고 거대한 고대 대도시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도시의 밑바닥을 흐르며 거대한 탑들을 하나로 연결했던 지하 미로들은, 지각 변동의 격동 속에서도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까?

내가 마주한 것이 불경한 고대의 흔적들로 가득 찬, 통째로 매몰된 세계였을까? 만약 그렇다면, 기록관의 집과 그 탑을 여전히 찾아낼 수 있을까? 남극의 별 모양 머리를 한 식물성 육식 생물 출신으로 사로잡혀 온 정신, '스그하'가 벽면의 빈 공간에 특정한 형상들을 새겨 넣었던 바로 그 탑 말이다. 지하 2층에 위치한, 외계 지성체들의 홀로 이어지는 통로 역시 막히지 않은 채 여전히 지나갈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을까? 그 홀에는 믿기지 않는 존재의 사로잡힌 정신이 머물고 있었다. 그 존재는 1,800만 년 뒤의 미래, 명왕성 너머 미지의 행성 내부 공동에 거주하는 반(半)가소성 생명체였다. 그 정신은 진흙을 빚어 만든 어떤 물건을 그곳에 보관해 두었다.

나는 눈을 감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의식 속을 헤집는 이 미친 꿈의 파편들을 쫓아내 보려 했으나, 그것은 애처롭고도 헛된 시도일 뿐이었다. 그제야 나는 처음으로 주변을 감도는 공기의 서늘함과 움직임, 그리고 축축한 기운을 뼈저리게 느꼈다. 몸서리가 쳐졌다. 영겁의 세월 속에 죽어버린 거대한 검은 심연들이 사슬처럼 길게 이어진 채, 내 너머 그리고 발밑 저 어딘가에서 분명 입을 벌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공포스러운 방들과 복도, 그리고 기울

어진 통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중앙 기록 보관소로 가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을까? 녹슬지 않는 금속으로 된 직사각형 금고 속에 담겨 있던 그 경외로운 기록들을 떠올리자,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힘이 다시금 내 뇌를 강렬하게 잡아끌었다.

꿈과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우주 시공간 연속체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든 역사가 잠들어 있다고 했다.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과 모든 시대에서 붙잡힌 정신들이 기록해 둔 역사 말이다. 물론 미친 소리였다. 하지만 나만큼이나 미쳐버린, 어둠에 잠긴 세계에 나 또한 발을 들여놓은 것 아닌가?

나는 잠겨 있는 금속 선반들과, 그 선반들을 열기 위해 필요한 기묘한 손잡이 조작법을 떠올렸다. 그러자 내 기억 속의 조작법이 생생하게 의식 위로 떠올랐다. 최하층에 있는 지구 척추동물 구역에서, 그 복잡하고 다양한 회전과 압박의 과정을 얼마나 자주 반복했었던가! 모든 세부 사항이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선명하고 익숙했다. 만약 내가 꿈속에서 본 것과 같은 금고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나는 순식간에 그것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광기가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찰나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바위 파편들을 뛰어넘고 비틀거리며, 기억 속에 선명한 저 아래 심연으로 향하는 경사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VII.

피슬리의 정신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들이 단순히 환각이나 정신병적 증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기괴하게 꼬여만 갔다. 그는 자신이 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뒤졌고, 미스카토닉 대학의 도서관에서 먼지 쌓인 고서들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그가 찾아낸 지식들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들이 인류의 역사보다 훨씬 이전, 혹은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가끔씩 찾아오는 기억의 파편들은 그를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것은 단순히 꿈을 꾸는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으로 던져지는 것과 같았다.

그의 연구는 점차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인류의 기원과 우주의 구조,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가진 불길한 본질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프나코틱 사본에 기록된 난해한 문장들을 해독하려 들었고, 고대 문명들이 남긴 기괴한 유물들의 의미를 찾으려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그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 진실은 그를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집어삼키려 들었다.

피슬리의 상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한때 촉망받던 학자였던 그는 이제 초췌하고 불안에 떠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고, 창밖의 어

둠 속에서 정체 모를 형체들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거대한 기만이며, 그 이면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일기에는 논리적인 서술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파편적인 기록들이 남겨졌다. 그 기록들은 마치 미쳐버린 자의 헛소리처럼 보였지만, 그 행간에는 분명히 무언가 실재하는 위협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시간의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차갑고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 시점부터 내가 겪은 일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사실 나는 아직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악마 같은 꿈이거나, 혹은 섬망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말이다. 뇌 속에서는 열병이 휘몰아쳤고, 모든 것이 안개 너머에 있는 듯 흐릿하게 다가왔다. 때로는 그마저도 끊어질 듯 이어졌다. 손에 든 손전등 빛은 집어삼킬 듯한 어둠 속으로 힘없이 뻗어 나갔다. 그 빛줄기는 세월의 부패로 얼룩진, 기괴할 정도로 익숙한 벽과 조각들을 환영처럼 번뜩이며 보여주었다. 어느 곳에서는 거대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있었다. 나는 기괴한 종유석이 매달린 울퉁불퉁한 천장에 닿을 듯 높이 쌓인 돌무더기를 힘들게 기어올라야 했다. 그것은 악몽의 정점이었으며, 가짜 기억이 불경스럽게 나를 잡아끄는 바람에 공포는 더욱 가중되었다. 오직 한 가지만이 낯설었다. 그 괴물 같은 석조물에 비친 나의 크기였다. 나는 평소와 다른 왜소함에 짓눌리는 기분을 느꼈다. 마치 인간의 몸으로 이 거대한 벽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새롭고 비정상적인 경험인 것처럼 느껴졌

다. 나는 내가 가진 이 인간의 형체가 왠지 모르게 불쾌하여, 몇 번이고 초조하게 내 몸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심연의 어둠 속을 향해 뛰어들고, 추락하고,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수없이 넘어지며 몸에 멍이 들었고, 한 번은 들고 있던 횃불이 깨질 뻔하기도 했다. 그 악마적인 구렁텅이의 돌 하나, 구석진 곳 하나까지 내게는 낯익은 곳이었다. 나는 곳곳에 멈춰 서서, 무너져 내리고 막혀버린 익숙한 아치형 통로 사이로 빛을 비추어 보았다. 어떤 방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어떤 방은 텅 비어 있거나 잔해로 가득했다. 몇몇 방에서는 금속 덩어리들이 보였다. 어떤 것은 형태가 온전했고, 어떤 것은 부서졌으며, 또 어떤 것은 짓눌리거나 찌그러져 있었다. 그것들이 꿈속에서 보았던 거대한 받침대나 탁자라는 사실을 나는 직감했다. 그것들의 실체가 진정 무엇이었을지,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래로 기울어진 경사로를 찾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거대하고 울퉁불퉁하게 찢겨 나간 틈새에 가로막혀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그 틈새의 가장 좁은 폭조차 족히 4피트는 되어 보였다. 그곳은 석조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자리였고, 그 아래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심연이 펼쳐져 있었다. 이 거대한 건축물에는 지하 저장실이 두 층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가장 낮은 층에 있던 금속 잠금장치가 달린 트랩도어를 떠올리며 새로운 공포에 몸을 떨었다. 이제 경비병은 없을 것이다. 지하에 도사리던 존재는 이미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긴 쇠락의 길로 접어든 지 오래였으므로. 인류 이후의 딱정벌레 종족이 나타날 무렵이면 그 존재는 완전히 죽어 있을 터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전설들을 떠올리자 나는 다시금 전율했다.

그 거대한 틈새를 뛰어넘으려니 엄청난 힘이 들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잔해들 때문에 제대로 달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기가 나를 몰아붙였다. 나는 왼쪽 벽에 가까운 곳을 골랐다. 그곳이 틈새 폭이 가장 좁았고, 착지할 지점도 위험한 파편이 적어 그나마 나아 보였다. 미친 듯이 몸을 날린 끝에, 나는 간신히 반대편에 무사히 내려앉았다.

마침내 아래층에 도달한 나는 기계실의 아치형 입구를 지나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그 안에는 무너져 내린 천장 아래 금속으로 된 기괴한 유적들이 반쯤 파묻혀 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예상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거대한 가로 복도를 가로막고 있는 더미들을 자신 있게 타고 넘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도시 아래에 있는 중앙 기록 보관소에 닿으리라는 사실을 나는 직감했다.

잔해로 뒤덮인 복도를 비틀거리며 뛰고, 도약하고, 기어갈 때마다 끝없는 세월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했다. 세월의 때가 탄 벽면에는 이따금 조각들이 보였다. 어떤 것은 낯익었으나, 어떤 것은 꿈속에서 보았던 시기 이후에 덧붙여진 것처럼 보였다. 이곳은 지하에서 건물들을 잇는 통로였기에, 경로가 여러 건물의 하층부를 통과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치형 입구가 없었다. 나는 교차로 중 몇 곳에서 잠시 길을 벗어나, 기억 속에 선명한 복도와 방들을 들여다보았다. 꿈에서 보았던 모습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곳은 단 두 번뿐이었다. 그중 한 곳에서는 내가 기

억하던 아치형 입구의 윤곽이 봉쇄된 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몸이 격하게 떨려왔다. 기묘할 정도로 무력감이 밀려드는 것을 느끼며, 나는 서둘러 그 지하 묘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창문 하나 없이 거대한 그 폐허가 된 탑 중 하나였다. 외계의 현무암으로 쌓아 올린 석조 구조물은 그 기원이 얼마나 끔찍하고 은밀한지를 속삭이는 듯했다. 원시적인 형태의 이 원형 묘실은 지름이 무려 200피트에 달했으며, 어두운 빛깔의 석벽에는 아무런 조각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바닥에는 먼지와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위아래로 통하는 구멍들이 보였다. 계단이나 경사로는 없었다. 사실 내 꿈속에서 본 그 고대의 탑들은 전설적인 이스의 위대한 종족이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탑을 세운 이들에게는 계단이나 경사로 따위는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아래로 향하는 구멍은 틈 하나 없이 꽉 막힌 채 삼엄한 경비가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구멍은 검게 입을 벌린 채 뻥 뚫려 있었고, 그곳에선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저 아래, 영원한 밤이 지배하는 끝없는 동굴 속에서 무엇이 웅크리고 있을지, 나는 차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나중에 나는 잔해더미가 엉망으로 쌓인 복도를 간신히 헤치며 나아갔다. 그러다 천장이 완전히 내려앉은 곳에 다다랐다. 무너져 내린 파편들이 산처럼 높게 솟아 있었기에, 나는 그 위를 기어올라야 했다. 파편을 넘어선 뒤에는 거대한 빈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너무나 넓어서 횃불을 비추어도 벽도, 천장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곳이 아카이브에서 멀지 않은 세 번째 광장에 면한, 금속 상인들의 저택 지하일 것이

라고 생각했다. 그 저택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잔해와 돌더미가 쌓인 산 너머에서 나는 다시 복도를 찾아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완전히 막힌 구간을 마주했다. 무너져 내린 아치형 천장이 위쪽의 위태롭게 처진 천장에 닿을 듯 말 듯한 곳이었다. 통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그 거대한 돌덩이들을 비틀고 뜯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주 작은 균형의 변화만으로도 머리 위의 수만 톤에 달하는 석조 구조물이 쏟아져 내려 나를 흔적도 없이 짓눌러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빽빽한 파편들을 건드릴 용기를 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를 몰아붙이고 이끈 것은 순전한 광기였다. 아니, 어쩌면 나의 이 지하 모험 전체가 지옥 같은 망상이나 꿈의 한 조각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어쨌든 나는 몸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냈다. 혹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꿈을 꾸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계속 켜둔 횃불을 입안 깊숙이 물고 잔해 더미 위를 기어갔다. 그때 머리 위로 들쭉날쭉한 바닥에서 내려온 기괴한 종유석들이 내 몸을 할퀴고 찢어발기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이제 나의 목표물인 듯한 거대한 지하 기록 보관소 구조물에 가까워졌다. 차단벽의 먼 쪽을 미끄러지듯 내려가고 기어오른 뒤,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손전등에 의지해 남은 복도를 조심스레 헤쳐 나갔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사방으로 아치형 입구가 난 낮고 둥근 지하 묘실이었다. 그곳은 여전히 경이로울 정도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벽면에는 기묘한 곡선 문양의 상형문자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시기 이후에 덧붙여진 듯했다.

이곳이 내가 마주할 운명적인 목적지임을 깨달았다. 나는 즉시 왼쪽의 익숙한 아치형 통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경사면을 따라 아직 남아 있는 모든 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명확한 통로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데에는 이상하리만큼 의구심이 들지 않았다. 태양계 전체의 연대기를 품고 있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대지에 보호받으며 태양계 그 자체가 지속되는 한 버틸 수 있도록 초월적인 기술과 힘으로 건설되었다. 수학적 천재성을 발휘해 배치한 거대한 암석 블록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견고한 시멘트로 결합되어, 행성의 암석 핵만큼이나 단단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아득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땅속에 묻힌 이 거대한 건축물은 본래의 윤곽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서 있었다. 먼지가 쌓인 광활한 바닥에는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동사니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 지점부터는 길이 비교적 평탄해졌는데, 그 덕분에 걷는 것이 묘하게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장애물에 가로막혀 좌절되었던 광적인 갈망이 이제는 일종의 열병 같은 속도로 터져 나왔다. 나는 아치형 입구를 지나 낮게 드리운 천장 아래, 기괴할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나는 복도들을 말 그대로 질주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놀라움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사방에는 거대한 상형문자가 새겨진 금속 선반 문들이 괴물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어떤 문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어떤 문은 활짝 열

려 있었으며, 또 어떤 문은 아주 오래전 지질학적 압력을 견디지 못해 휘어지고 뒤틀려 있었다. 물론 그 압력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강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여기저기 뻥 뚫린 빈 선반 아래에는 먼지 쌓인 더미들이 쌓여 있었는데, 지진으로 인해 케이스들이 흔들려 떨어진 자리임을 알 수 있었다. 가끔 보이는 기둥에는 책의 분류와 세부 분류를 나타내는 거대한 상징이나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한번은 열려 있는 보관함 앞에 멈춰 선 적이 있었다. 사방에 자욱한 먼지 속에서도 익숙한 금속 상자들이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얇은 상자 하나를 어렵사리 꺼낸 뒤, 살펴보기 위해 바닥에 내려놓았다. 상자 겉면에는 그곳의 주된 문자인 곡선형 상형문자가 제목으로 적혀 있었으나, 글자 배열이 어딘가 미묘하게 생소했다. 갈고리 모양의 독특한 잠금장치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조였기에, 나는 녹슬지 않아 여전히 부드럽게 열리는 덮개를 툭 젖히고 그 안에서 책을 꺼냈다.

책은 예상대로 가로 15인치, 세로 20인치 크기에 두께는 2인치 정도였으며, 얇은 금속 표지가 위쪽으로 열리는 형태였다. 질긴 셀룰로오스 재질의 페이지는 그동안 겪어온 무수한 시간의 흐름에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듯했다. 나는 붓으로 그려낸 듯한 기묘한 색채의 글자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것은 일반적인 곡선형 상형문자나 인류의 학문으로 알려진 그 어떤 알파벳과도 전혀 닮지 않은 기호들이었다. 나는 잊힌 듯하면서도 어렴풋이 깨어나는 기억을 붙잡으며 그 문장들을 읽어 내려갔다.

문득, 이 언어가 꿈속에서 어렴풋이 마주했던 어느 포로의 정신이 사용하던 언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 정신은 거대한 소행성에 머물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태고의 행성에서 파생된 고대의 생명과 지식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다. 동시에 나는 이 기록 보관소의 구역이 지구 외의 행성들을 다룬 서적들을 모아둔 곳이라는 사실도 떠올렸다.

믿기 힘든 이 기록을 살피던 일을 멈추었을 때, 손에 든 손전등의 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평소 늘 지니고 다니던 여분의 배터리를 재빨리 끼워 넣었다. 다시금 밝아진 빛을 의지해, 나는 끝없이 뒤엉킨 통로와 복도 사이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가끔 익숙한 선반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으나, 영겁의 죽음과 침묵이 깃든 이 지하 묘지의 기묘한 울림은 나를 자꾸만 괴롭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소리가 어울리지 않게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다.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밟지 않은 먼지 위에 남겨진 내 신발 자국을 뒤돌아볼 때면 소름이 끼쳤다. 만약 나의 광기 어린 꿈들이 조금이라도 진실을 담고 있다면, 인류의 발길이 이 아득한 옛날의 포장로를 밟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이 미친 듯한 질주를 통해 도달하려는 목적지가 무엇인지, 의식적인 정신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악한 힘이 나의 멍한 의지와 묻혀 있던 기억들을 무언가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불길한 힘 때문에, 나는 내가 결코 목적 없이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막연하게나마 직감했다.

나는 아래로 기울어진 경사로에 다다랐고, 그 길을 따라 더 깊은 심연으로 내려갔다. 정신없이 질주하는 사이 바닥들이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들을 살펴보느라 멈춰 설 여유는 없었다. 어지러운 머릿속에서는 어떤 특정한 리듬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 박자에 맞춰 오른손이 경련하듯 움찔거렸다. 나는 무언가를 열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열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뒤틀림과 압력을 어떻게 가해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다이얼식 잠금장치가 달린 현대식 금고를 다루는 것과 같았다. 그것이 꿈이었든 아니었든, 나는 한때 그것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었다. 꿈이, 혹은 무의식중에 흡수한 전설의 파편이 어떻게 이토록 미세하고 정교하며 복잡한 세부 사항까지 내게 가르쳐 줄 수 있었는지, 나는 스스로에게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이미 이성적인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이 모든 경험이, 즉 이름 모를 유적지에 대한 이 충격적인 친숙함과 눈앞의 모든 것이 오직 꿈이나 신화의 파편 속에서나 보았던 것들과 괴물같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이성을 초월한 공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마도 당시의 나는, 그리고 지금 제정신일 때조차 마찬가지지만, 내가 전혀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매몰된 도시 전체가 그저 열병에 들뜬 환각의 파편일 뿐이라고 말이다.

결국 나는 가장 낮은 층에 도달했고, 경사로의 오른쪽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무슨 음산한 이유 때문인지, 나는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최대한 소리를 죽여 조심스럽게 걸었다. 이 깊숙이 묻힌 마지막 층에는 차마 건너기 두려운 공간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시금 떠올렸다. 그것은 그저 금속 창살이 달린, 삼엄하게 경비되는 해치 중 하나일 뿐이었다. 지금은 경비병이 없겠지만, 나는 그 사실 때문에 몸을 떨며 발끝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비슷한 해치가 입을 벌리고 있던 검은 현무암 지하 저장고를 지나올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곳에서 느꼈던 것처럼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의 흐름이 느껴졌고, 나는 내 길이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왜 내가 반드시 이 길로 가야만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바닥의 해치가 입을 벌린 채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앞쪽으로는 다시 선반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선반 앞 바닥에는 최근에 떨어진 듯한 상자들이 먼지를 얇게 뒤집어쓴 채 쌓여 있었다. 그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다시금 나를 덮쳤다. 상자들이 무더기로 떨어져 있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영겁의 세월 동안 이 빛 없는 미궁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뒤흔들렸고, 물건들이 무너져 내리며 내는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공간을 거의 다 가로질렀을 때가 되어서야, 나는 왜 내 몸이 이토록 격렬하게 떨리고 있는지 깨달았다.

쌓여 있는 더미가 문제가 아니었다. 평평한 바닥에 내려앉은 먼지, 바로 그 무언가가 나를 괴롭혔다. 손전등 불빛 아래 비친 먼지는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처럼 고르게 퍼져 있지 않았다. 어떤 곳은 먼지가 유독 얇게 깔려 있었는데, 마치 불과 몇 달 전에 누군가 건드린 듯한 모습이었다. 분명한 것은 아니었다. 얇아 보이는 곳조차 먼지가 충분히 쌓

여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불규칙함 속에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숨어 있다는 의구심이 들자,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손전등을 그 기묘한 지점 중 한 곳에 가까이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소름이 끼쳤다. 환상이라 믿었던 그 규칙성이 너무나도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일정한 선을 따라 찍힌 복합적인 흔적 같았다. 흔적은 세 개가 한 세트를 이루며 나란히 이어졌고, 각각의 크기는 약 1피트 사각형 정도였다. 그 안에는 지름 3인치에 달하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발자국 다섯 개가 찍혀 있었는데, 하나가 나머지 네 개보다 약간 앞서 나가 있었다.

네모난 발자국 모양의 흔적들이 두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어딘가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말이다. 물론 흔적은 매우 희미해서 환각이거나 우연히 생긴 자국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흔적이 이어지는 방향을 생각할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막연한 공포가 엄습했다. 한쪽 끝에는 얼마 전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을 상자 더미가 놓여 있었고, 반대쪽 끝에는 불길한 해치가 입을 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틈 사이로는 서늘하고 축축한 바람이 불어 나왔으며, 그 아래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VIII.

피슬리의 정신은 한동안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가끔 혼동하곤 했다.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 파편들은 때때로 전혀 상관없는 시간과 장소의 환영을 불러일으

켰다. 그는 자신이 아컴의 평범한 교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인지는 마치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그의 의식은 종종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눈을 뜨고 있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다른 곳에 있다는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것은 단순한 몽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 낯설고 거대한 무언가의 흐름 속으로 던져진 것 같은 실재적인 경험이었다. 그는 가끔 자신이 보지 못한 풍경을 보고,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들었으며, 경험하지 않은 고통을 느꼈다.

그의 정신적 붕괴는 점차 심화되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이 기이한 현상들이 단순한 신경쇠약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무언가 근본적이고, 우주적인 질서가 뒤틀리며 발생하는 현상 같았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자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만약 그가 느끼는 이 방대한 기억들이 타인의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피슬리'라고 불리는 존재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미스카토닉 대학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으나, 그들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교수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가 겪는 혼란을 의학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하지만 피슬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마주한 것은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발생하는 거대한 재앙이었다.

기괴한 강박이 내 공포마저 집어삼켰다는 사실은, 그 압도적인 힘이 나를 어떻게 지배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발자국이 남긴 그 끔찍한

의구심과, 그로 인해 꿈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기억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이성적인 동기 따위로는 도저히 발을 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 오른손은 공포로 파르르 떨리면서도, 간절히 찾고 있는 자물쇠를 돌리고 싶다는 듯 리듬에 맞춰 경련하듯 움직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최근에 무너져 내린 서류함 더미를 지나 있었다. 그리고는 마치 병적으로, 소름 끼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어떤 지점을 향해, 먼지 한 톨 흐트러지지 않은 통로 사이를 까치발로 달려가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그 질문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대체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지조차 이제야 겨우 짐작할 뿐이었다.

인간의 몸이 저 선반에 닿을 수 있을까? 인간의 손으로, 영겁의 세월 동안 기억해 온 그 자물쇠의 움직임을 모두 재현할 수 있을까? 자물쇠는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까? 그리고 만약 내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하던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감히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뇌를 산산조각 낼 만큼 경악스러운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뿐이라는 증거일까?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발꿈치를 들고 서둘러 움직이던 것을 멈추고, 미칠 듯이 익숙한 상형문자가 새겨진 선반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선반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고, 근처의 문들은 단 세 개만이 열려 있었다. 이 선반들을 마주한 기분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낯설지

않은 느낌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끈질기게 밀려왔다. 나는 손이 닿지 않는 맨 위쪽 선반을 올려다보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고민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열려 있는 문이 도움이 될 것이고, 닫힌 문들의 잠금장치는 손과 발을 디딜 발판이 되어줄 터였다. 양손을 모두 써야 했던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는 손에 든 횃불을 입에 물고 움직일 생각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었다. 꺼내고 싶은 물건을 어떻게 아래로 내릴지가 문제였지만, 아마도 물건의 움직이는 잠금 고리를 내 코트 깃에 걸어 배낭처럼 메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잠금장치가 망가지지 않았기를 바랐다. 익숙한 동작들을 하나하나 반복하는 데에는 조금의 의구심도 없었다. 다만 그 물건을 다룰 때 긁히는 소리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기를, 그리고 내 손이 그것을 제대로 조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와중에도, 나는 입에 횃불을 물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툭 튀어나온 자물쇠들은 지지대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열려 있는 선반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위로 올라가며 흔들거리는 문과 구멍의 가장자리를 번갈아 붙잡았다. 덕분에 큰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다. 문의 윗부분에 중심을 잡고 몸을 오른쪽으로 한껏 기울이자, 간신히 목표한 자물쇠에 손이 닿았다.

계속 기어오른 탓에 손가락 끝은 반쯤 감각이 없었고, 처음에는 움직임도 매우 서툴렀다. 하지만 곧 내 손가락이 해부학적으로 충분히 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가락에는 기억된 리듬이 강하게 남아 있

었다. 알 수 없는 시간의 심연으로부터 전해진 그 복잡하고 은밀한 움직임들이, 어떤 식으로든 세세한 부분까지 내 뇌에 정확히 전달되어 있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의식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소리였기에, 그 익숙함은 더욱 놀랍게 다가왔다. 다음 순간, 금속 문이 아주 미세한 긁히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나는 멍한 정신으로 드러나 있는 회색빛 상자들을 훑어보았다. 그러자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오른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상자에 새겨진 곡선형 상형문자를 보는 순간, 단순한 공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여전히 몸을 떨며, 모래 같은 파편들을 흩뿌리는 상자를 조심스레 건드려 움직였다.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자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미 만져본 다른 상자와 마찬가지로, 이 상자 역시 가로세로가 20x15인치보다 조금 더 컸고, 표면에는 낮은 부조로 된 곡선형 수학적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두께는 3인치를 약간 넘었다. 나는 상자를 몸과 내가 기어오르던 표면 사이에 투박하게 끼워 넣은 뒤, 더듬거리며 잠금장치를 만져 마침내 갈고리를 풀어냈다. 덮개를 들어 올린 나는 묵직한 상자를 등에 짊어지고, 갈고리를 내 옷깃에 걸었다. 이제 자유로워진 양손을 이용해 먼지 쌓인 바닥으로 어설프게 기어 내려온 나는, 내가 얻은 전리품을 살펴볼 준비를 했다.

모래 먼지가 자욱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나는 상자를 돌려 내 앞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왔다. 상자 안의 책을 꺼내고 싶은 갈망과 강박이 일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꺼내는 것이 두려워 차마 손을 대지 못

했다. 내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은 나를 거의 마비시킬 정도였다. 만약 그 물건이 정말 그곳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사실이 내포한 의미는 인간의 정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을 것이다.

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지금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눈앞의 현실감이 너무나 끔찍했다.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는 지금도, 그 소름 끼치는 현실감이 다시금 나를 덮쳐온다.

마침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관함에서 책을 꺼냈다. 그리고 표지에 새겨진, 이미 익숙한 상형문자들을 홀린 듯이 응시했다. 책은 아주 양호한 상태로 보였다. 제목을 이루는 곡선 형태의 글자들은 마치 내가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최면 상태와도 같은 묘한 몰입감 속으로 끌어당겼다. 사실, 내가 비정상적인 기억이 일시적이고도 끔찍하게 되살아나는 바람에 실제로 그 글자들을 읽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 얇은 금속 덮개를 감히 들어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나는 시간을 끌며 스스로에게 온갖 핑계를 댔다. 입에 물고 있던 손전등을 내려놓고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불을 껐다. 그러고는 어둠 속에서 간신히 용기를 내어, 불을 켜지 않은 채 마침내 덮개를 들어 올렸다. 마지막 순간, 나는 드러난 페이지 위로 손전등 빛

을 비추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든 어떤 소리도 내지 않겠노라고,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서 말이다.

잠시 눈을 돌려 확인한 나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침묵을 지켰다. 밀려드는 어둠 속에서 나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 채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내가 두려워하며 예상했던 것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시공간이 기만적인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꿈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약 이것이 정말 실재한다면 이 물건을 가지고 돌아가 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공포를 시험해 보리라 다짐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암흑 속에는 눈에 보이는 물체라곤 하나도 없었으나, 머릿속은 무서울 정도로 어지러웠다. 찰나의 목격이 열어젖힌 아득한 풍경에 자극받은, 극도의 공포를 담은 관념과 형상들이 내 정신을 헤집으며 몰려들기 시작했다.

먼지 위에 남겨진 그 발자국들을 떠올리자, 내 숨소리조차 공포스러워 몸이 떨려왔다. 나는 다시 불을 밝히고 책장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뱀의 먹잇감이 된 짐승이 자신을 파멸시킬 포식자의 눈과 송곳니를 응시하듯, 나는 그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어둠 속에서 서툰 손짓으로 책을 덮었다. 책을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은 뒤, 기묘하게 생긴 갈고리 잠금장치까지 채웠다. 만약 바깥세상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만약 이 거대한 심연이 실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나 자신과 이 세계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나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야만 했다.

내가 정확히 언제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되돌아오기 시작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지하에서 보낸 그 끔찍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시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득 기묘하게 떠오른다. 그것은 내가 정상적인 세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처럼 느껴졌다. 손에는 횃불을 들고, 불길한 상자를 겨드랑이에 낀 채, 나는 결국 소리 없는 공포에 질려 발끝을 세우고 움직였다. 바람이 몰아치는 심연과 그 곁에 도사린 발자국 흔적들을 지나칠 때면 더욱 그랬다. 끝없이 이어지는 경사로를 올라가며 경계심은 조금씩 잦아들었으나, 내려올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불길한 예감만큼은 떨쳐낼 수 없었다.

도시가 세워지기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검은 현무암 지하 묘지를 다시 지나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곳은 지켜주는 이 없는 깊은 심연으로부터 차가운 외풍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곳이었다. 나는 이스의 위대한 종족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설령 그것이 아주 미약하게 사멸해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저 아래 어딘가에 여전히 숨어 있을지도 모를 무언가를 생각했다. 다섯 개의 원형 발자국이 남겼을지도 모를 흔적과, 내 꿈이 그 발자국에 대해 속삭였던 내용들을 떠올렸다. 그 발자국과 함께 들려오던 기이한 바람 소리와 휘파람 같은 소음도 함께였다. 그리고 거대한 바람과 이름 모를 지하 유적의 공포를 다룬 현대 흑인들의 설화들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벽면에 새겨진 문양을 보고 나는 들어갈 층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다른 책을 지나치자, 마침내 가지처럼 뻗어 나간 아치형 통로들이 있는 거대한 원형 공간이 나타났다. 오른쪽에는 내가 들어왔던 아치가 바로 보였다. 나는 그 아치를 통해 안으로 들어섰다. 기

록 보관소 건물 밖의 석조물들이 무너져 내린 상태라, 앞으로 남은 여정은 더욱 험난할 것임을 직감했다. 새로 얻은 금속 케이스의 짐이 나를 짓눌렀다. 사방에 널린 잔해와 파편들 사이를 비틀거리며 나아가다 보니, 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움직이는 것조차 점점 더 힘겨워졌다.

천장 높이까지 쌓인 잔해 더미 앞에 다다랐다. 나는 이미 그 더미를 비집고 들어가 간신히 좁은 통로 하나를 만들어 둔 상태였다. 그 좁은 틈을 다시 기어 나가야 한다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처음 통로를 만들 때 소리가 났던 데다, 아까 그 발자국들을 본 뒤로는 그 무엇보다 소리가 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케이스까지 챙겨야 하니 좁은 틈을 통과하는 일은 두 배로 어려워졌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잔해 더미를 기어올라갔고, 눈앞의 구멍으로 케이스를 먼저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입에 손전등을 문 채 몸을 비틀며 통로를 빠져나갔다. 예전처럼 종유석에 등이 긁히며 고통이 밀려왔다.

다시 케이스를 잡으려던 찰나, 케이스가 내 앞쪽 잔해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요란한 소음과 함께 메아리가 울려 퍼졌고,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얼어붙었다. 나는 즉시 케이스를 향해 몸을 날렸고, 다행히 더 이상의 소음 없이 케이스를 다시 붙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발밑에서 돌덩이들이 미끄러지며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소음이 터져 나왔다.

그 소음이 나를 파멸로 몰아넣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내 뒤편 아주 먼 곳에서 그 소음에 응답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나는

믿었기 때문이다. 세상 그 무엇과도 같지 않은, 어떤 말로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린 듯했다. 그저 내 상상이 만들어낸 환청이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뒤이어 벌어진 일들은 참으로 잔혹한 역설이었다. 이 공포에 질린 소동만 아니었다면, 두 번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시 나의 광기는 걷잡을 수 없이 몰아쳤고, 그 어떤 안식도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손에 든 횃불을 움켜쥐고, 힘없이 케이스를 붙든 채 미친 듯이 앞을 향해 뛰어오르고 달렸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악몽 같은 폐허를 벗어나, 저 멀리 위쪽에 펼쳐진 사막과 달빛이 흐르는 깨어 있는 세상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는 광적인 갈망뿐이었다.

무너져 내린 천장 너머, 광활한 어둠 속으로 치솟은 잔해 더미에 다다랐을 때도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울퉁불퉁한 돌덩이와 파편들이 가파르게 쌓인 경사면을 기어오르며, 나는 몸 곳곳이 긁히고 멍들었다.

그때, 거대한 재앙이 닥쳤다.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낭떠러지를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정상에 올라선 순간, 발을 완전히 헛디디고 말았다. 나는 쏟아져 내리는 석재들의 무자비한 눈사태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돌덩이들이 부딪히며 내는 굉음은 대포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 귀를 찢는 듯한 진동은 검은 동굴의 공기를 뒤흔들며 대지를 뒤흔드는 메아리가 되어 몰아쳤다.

이 혼돈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찰나의 의식 조각만이 보여줄 뿐이다. 요란한 금속음이 울려 퍼지는 복도를 따라, 나는 케이스와 횃불을 든 채 비틀거리며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러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태고의 현무암 지하 묘지에 다다랐을 때, 완전한 광기가 나를 덮쳤다. 눈사태의 잔향이 잦아들자, 이전에 들었던 것 같은 그 소름 끼치고 이질적인 휘파람 소리가 다시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소리가 내 뒤가 아니라 바로 앞쪽에서 들려왔다는 사실이다.

아마 그때 나는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엘더 씽들의 지옥 같은 현무암 공동을 가로질러 날아다니던 나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어둠이 펼쳐진, 경계도 없이 열려 있는 문틈 사이로 그 저주스러운 외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도 들린다. 바람 또한 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아니었다. 그 가증스러운 심연으로부터, 그 불결한 휘파람 소리가 흘러나오는 구렁텅이로부터, 사납고도 차가운 돌풍이 격렬하고도 목적을 가진 듯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온갖 장애물을 뛰어넘고 비틀거리며 나아갔던 기억이 난다. 거센 바람과 비명 같은 소음은 순간순간 거세졌고, 뒤쪽과 아래쪽의 틈새에서 사악하게 뿜어져 나온 그 소리들은 마치 나를 겨냥해 의도적으로 휘감기며 뒤틀리는 듯했다. 바람은 내 뒤에서 불어왔지만, 이상하게도 전진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했다. 마치 나를 옭아매려는 올가미나 밧줄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내는 소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대한 블록 장벽을 요란하게 타고 넘어 지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물 안으로 다시 들어섰다. 기계실로 통하는 아치형 입구가 언뜻 보였다. 그 아래로 경사진 통로가 이어져 있었고, 두 층 아래 어딘가에는 그 신성모독적인 트랩도어가 입을 벌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것이 곧 깨어날 꿈일 뿐이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어쩌면 나는 캠프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컴의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이 간신히 이성을 붙잡아 주었고, 나는 더 높은 층으로 향하는 경사로를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4피트 너비의 갈라진 틈을 다시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공포에 짓눌려 있던 탓에, 그 틈에 거의 다다르고 나서야 비로소 닥쳐올 완전한 공포를 실감할 수 있었다. 내려갈 때는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었지만, 올라갈 때는 과연 어떨까. 공포와 탈진, 금속 상자의 무게, 그리고 악마 같은 바람이 뒤쪽에서 끌어당기는 기이한 힘에 방해를 받으면서도 저 간극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 나는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혔다. 동시에 저 틈새 아래 검은 심연 속에 이름 모를 존재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흔들리는 횃불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어떤 희미한 기억 덕분에 나는 갈라진 틈새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뒤편에서 몰아치는 차가운 돌풍과 구역질 나는 휘파람 소리는, 눈앞에 입을 벌린 거대한 심연의 공포로부터 내 상상력을 무디게 해주는 자비로운 마약과도 같았다. 그러다 문득, 내 앞에서도 돌풍과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

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연으로부터, 갈라진 틈새를 타고 밀려오는 혐오스러운 파도였다.

그야말로 순수한 악몽의 본질이 나를 덮쳐왔다. 이성은 이미 떠나버렸다. 나는 도망치고 싶다는 짐승 같은 충동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마치 눈앞에 거대한 심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비탈길에 널브러진 잔해들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위를 향해 기어 올라갔다. 그러다 마침내 절벽 끝에 다다랐고, 남은 힘을 모조리 쏟아부어 미친 듯이 몸을 날렸다. 그 순간, 나는 혐오스러운 소음과 형체를 만질 수 있을 만큼 짙고 완전한 어둠이 휘몰아치는 아수라장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내가 기억해 낼 수 있는 경험은 여기까지다. 그 이상의 인상은 온전히 환각적인 망상의 영역에 속한다. 꿈과 광기, 그리고 기억은 서로 격렬하게 뒤섞여,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기괴하고 파편적인 망상들을 만들어냈다.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거리의 끈적하고 의식을 가진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끔찍한 감각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지구의 유기 생명체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질적인 소음들이 바벨탑처럼 뒤엉켜 울려 퍼졌다. 내 안의 잠들어 있던 원시적인 감각들이 깨어나는 듯했다. 그 감각들은 떠다니는 공포로 가득 찬 구덩이와 빈 공간들을 일깨웠고, 빛 한 점 들지 않는 절벽과 바다, 그리고 창문 하나 없는 현무암 탑들이 즐비한 거대한 도시로 나를 인도했다. 그 도시에는 그 어떤 빛도 결코 닿지 않았다.

시각이나 청각의 도움 없이도 태고의 행성이 간직한 비밀과 아득한 영겁의 세월이 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전의 가장 황당무계한 꿈조차 감히 짐작조차 못 했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졌다. 그 와중에도 눅눅한 증기로 이루어진 차가운 손가락들이 끊임없이 나를 움켜쥐고 할퀴어댔다. 주변을 휘감은 어둠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벨탑의 소음과 정적이 번갈아 몰아칠 때마다 그 기괴하고 저주스러운 휘파람 소리는 악마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 후에는 꿈속에서 보았던 거대한 사이클롭스 도시의 환영이 나타났다. 폐허가 된 모습이 아니라, 내가 꿈꾸었던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다시 원뿔 모양의 비인간적인 신체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높은 복도와 거대한 경사로를 오르내리며 책을 나르는 위대한 종족과 포로가 된 정신들 사이를 거닐었다.

그러다 이 환상들 위로 끔찍한 찰나의 기억들이 겹쳐 들어왔다.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느껴지는 의식의 파편들이었다. 그것은 처절한 사투였다. 휘몰아치는 바람의 촉수로부터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감각, 반쯤 고체 상태인 공기 속을 박쥐처럼 미친 듯이 날아다니는 감각,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는 어둠 속을 열병에 걸린 듯 파고드는 감각, 그리고 무너진 석조물 위를 거칠게 비틀거리며 기어가는 감각들이었다.

한때 기묘하고도 불쑥 끼어든, 반쯤 흐릿한 시야의 잔상이 있었다. 머리 위 아주 먼 곳에서 희미하고 번지는 듯한 푸른 빛이 감돌았다는 막연한 의심 같은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바람에 쫓기며 기어오르고 기어가는 꿈이 이어졌다. 병적인 허리케인 속에서 잔해들이 내 뒤를 따라

미끄러지고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나는 뒤엉킨 파편들을 헤치며 냉소적인 달빛이 환하게 쏟아지는 곳으로 꿈틀거리며 기어 들어갔다. 마침내 내가 한때 객관적이고 깨어 있는 세계라고 믿었던 것이 돌아왔음을 알려준 것은, 그 미치도록 눈부신 달빛이 내뿜는 사악하고 단조로운 박동이었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막의 모래 위를 엎드린 채 필사적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내 주변에는 이 행성의 지표면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센 바람이 비명처럼 휘몰아쳤다.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온몸은 멍과 긁힌 상처로 가득했다. 의식은 아주 느리게 돌아왔다. 어디까지가 실제 기억이고 어디서부터가 섬망 섞인 꿈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다.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이 쌓인 언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래에는 심연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과거로부터 드러난 기괴한 계시와 그 끝에서 마주한 악몽 같은 공포까지. 하지만 이 중 무엇이 진실이란 말인가? 손전등은 사라졌고, 혹시라도 발견했을지 모를 금속 상자 역시 보이지 않았다. 애초에 그런 상자가 있기는 했을까. 심연이나 언덕 같은 것이 존재하기는 했을까. 나는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았으나, 보이는 것이라고는 황량한 사막의 메마르고 물결치는 모래뿐이었다.

악마 같은 바람이 잦아들었고, 부풀어 오른 버섯 모양의 달은 붉게 물든 채 서쪽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캠프가 있는 남서쪽을 향해 휘청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저 사막 한가운데 쓰러졌다가, 꿈에 시달리는 몸을

이끌고 수 마일의 모래와 매몰된 돌덩이 위를 헤매고 온 것뿐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더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새로운 의구심이 밀려들자, 내가 본 환상들이 그저 신화 속의 허구일 뿐이라는 믿음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지옥 같은 근원적 회의였다. 만약 그 심연이 실재한다면, 이스의 위대한 종족 또한 실재하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우주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신성모독적인 손길을 뻗치고 무언가를 낚아채는 행위는, 결코 신화나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끔찍한 현실이었다.

그 암흑 같고 당혹스러운 기억 상실의 나날 속에서, 내가 정말로 끔찍한 실체를 지닌 채 1억 5천만 년 전의 인류 이전 세계로 끌려갔던 것일까? 나의 지금 육체가, 태고의 시간이라는 심연에서 건너온 공포스러운 외계 의식을 실어 나르는 매개체였던 것일까? 그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괴물들에게 사로잡힌 정신으로서, 나는 태초의 전성기를 누리던 저 저주받은 석조 도시를 정말로 목격했던 것일까? 그리고 나를 붙잡은 자들의 혐오스러운 형상으로 그 익숙한 복도들을 꿈틀거리며 지나갔던 것일까? 20년 넘게 나를 괴롭힌 그 꿈들이, 사실은 생생하고도 기괴한 기억의 파편들이었단 말인가? 내가 정말로 시공간의 아득한 구석에서 온 정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우주의 비밀을 배웠으며, 저 거대한 기록 보관소의 금속 보관함에 담길 내 세계의 연대기를 기록했던 것일까? 그리고 미친 바람과 악마의 피리 소리 속에서 나타난 그 충격적인 엘더 씽(Elder Things)들이, 사실은 이 행성의 풍파에 깎인 지표면 위에서 온갖 생명체가 수만 년의 세월을 끌고

가는 동안, 검은 심연 속에 숨어 서서히 쇠약해지며 기회를 엿보는 잔혹한 위협이었던 것일까?

나도 모르겠다. 만약 그 심연과 그 안에 담긴 존재들이 실재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세상 위에는, 조롱하듯 믿기지 않는 '시간 밖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일이 그저 신화 속에서 태어난 나의 망상일 뿐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증거가 되었을 그 금속 상자를 나는 가져오지 못했고, 그 지하 통로들 또한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우주의 법칙이 자비롭다면, 그 통로들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아들에게 내가 본 것, 혹은 보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아들이 심리학자로서 내 경험의 실체를 가늠하고, 이 기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

내가 고통스러운 꿈에 시달려야 했던 세월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 진실의 핵심은 바로 내가 그 거대한 거석으로 이루어진 매몰된 유적에서 보았다고 믿었던 것의 실체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 결정적인 계시를 글로 옮기는 일은 내게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 비록 독자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물론 그 계시는 금속 상자 안에 든 책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수백만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쌓인 먼지 속, 잊힌 은신처에서 그 상자를 비틀어 꺼냈다. 인류가 이 행성에 나타난 이래로, 그 책을 본 눈도 그 책을 만진 손도 없었다.

하지만 그 공포스러운 거석의 심연 속에서 내가 손전등을 비추었을 때, 나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다. 세월의 풍파에 갈색으로 변해 바스러질 듯한 셀룰로오스 종이 위에 기묘한 색채를 띠며 적힌 글자들은, 지구의 태고 시절에 쓰였을 법한 이름 모를 상형문자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알파벳이었으며, 심지어 내 필체로 쓰인 영어 단어들이었다.

이 페이지는 2009년 8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문의하기 • 사이트맵 • 검색 • 기부하기 • Copyright © 1998–2026 by Donovan K. Loucks. All Rights Reserved. •